朝鮮日報

第二夕刊 十日(金) 本紙朝夕刊十二面

本社定期刊行物 朝鮮日報 少年朝鮮日報 朝光(月刊) 女性(同) 少年(同)

寒菊 全山馬 山酒造場

武力엔武力으로對抗
一切의責任은獨逸에
英首相三次對獨强硬態度披瀝

【倫敦九日發同盟】九日倫敦市長就任宴會式午餐會席上에서 체임버린首相이 朗讀한 演說全文은如左하다 英、獨政府가 英國과同樣으로 一大平和를 欲望하고잇섯다면 余는今日現在와가튼事態는惹起되지안헛고 또未來永劫惹起되지안흐리라고 斷言할수잇다그러나 實際는 獨逸의運命은 頑固한 人物에 依하여 指導되어 彼等은 그目的達成에 當하여는일찌기꾀하여成功한武力에依한以外에 아모것도滿足치안는다 따라서이로부터惹起될一切 責任은彼等에게돌리지안흐면안된다 武力以外의말을갓지안흔者에對한 回答은 다만한가지武力이 잇을뿐이다 我等은武力을잡도록强制된以上 今日까지 오래동안歐洲諸國民의 生活을脅威시킨 脅威로부터 歐洲를解放시킬 때까지는 斷乎干戈를 거두지안흘것이다 以上의戰爭擴大를 解放하려하여 調停을提議한 레오폴드三世와 윌헤르미나 女皇의崇高한 動機에對하여는 何人이나 多謝할바이나 遺憾이지만 余는 히틀러總統으로부터 滿足한回答을 어드리라고는 期待되지안는다고 告白치안흐면 안된다 그러나 我等은 다른 方法에 依하여 滿足할 解決이 達成될수 잇다면 以上戰爭을 繼續하기를 欲望하는者아니다 따라서政府의 義務로서 皇帝에 對하여 皇帝께서하옵실 回答에 對하여 御忠告를드림에 當하여 回答하기前에 我等과함께 協調하고잇는 自治領과 聯合國과 協議할것은當然하고 또必要할것이다 今次戰爭은 만흔사람들에게는 戰爭으로보이지안는 奇妙한것일것이다 이가튼感情이 어느날까지 繼續할는지 또는 如何한時期에 激烈한 戰爭으로 變化할지 어쩔지는 알수업스나 如何튼 時日이흘러감에따라 聯合國의地位는 下落되지안코오히려强化되엇다 卽英佛兩國이 土耳其와 締結한條約은 東南歐의 平和確立을爲하여 强力한 手段임에 反하여 獨蘇友好條約締結의 結果로서 露國은 多大한利益을獲得하엿슴에不拘코 獨逸은 屈服과損失을獲得한데不過하다 米國의武器禁輸撤廢案은 極히重大한意義가잇는것이다 이로써 米國은 中立을 維持하면서 聯合國에對하여 地上最大의 軍需補給倉庫의門을열은것이다 그리고我等은 全國民의更一層廣汎한 支持와 全英帝國一體로된 支持를要望한다 自治領에서 印度에서 全植民地帶를 通하여 我等은 勝利를바라고 邁進하려한다 我等의 決議와 目的에 對하여 勝算은 모두가잇다 가장信賴할 同盟國 佛國과는 我等은 完全圓滿한 諒解를가지고잇다 이가튼마음、이가튼支持、이가튼盟邦으로써하면 我等이 敗戰할리는 잇슬수업다 全自由는人道가 暴力의 强壓과 支配를 打破하고 새로운世界의 基礎를 向하여나갈날이 到來할것을생각하고 欣快하여마지안는바이다 (寫眞은 체임버린英首相)

獨、大軍集結에對備
白、六十萬兵動員
和蘭은對獨洪水戰術開始

【암스테르담九日發同盟】獨逸軍의白耳義、和蘭兩國國境方面集結에伴하여 同方面의 情勢는 俄然緊張을 未하게되는바 九日암스테르담市에達한 情報에依하면 白耳義는 六十萬兵力을 動員하엿다고한다 但兩國當局이 모두 此等措置는 萬一의 境遇를 豫想하고 和蘭은 洪水防禦準備로 國境低地地帶의 住民에 避難을 命하고 또白耳義도 最大限의 警戒를 取하고잇는것으로 危險이 目前에 切迫하엿다는 意味는 아니라고 强調하고잇다

【암스테르담九日發同盟】和蘭當局은 獨和國境情勢切迫에 鑑하여 九日俄然中部和蘭으로부터 南方及알·마스兩河間地方의 河川堤防을 欠潰 洪水戰術을 開始하엿다 그리고 右地域은 首都海牙或은 암스테르담、로테르담 其他工業地帶를 防禦하는 和蘭防禦의 第一線的地方이다

警備兵衝突 獨和兩國國境에서

【倫敦九日發同盟】九日海牙로부터倫敦에達한 情報에依하면 獨和國境警備兵間에 衝突事件이勃發되어 그結果和蘭側 兵一名死亡 數名이獨逸側에 拉致되엇다고한다 獨和國境의 形勢가 緊迫한때인만큼 極히注目된다

全線에戰爭

【巴里九日發同盟】佛軍司令部는 八日夜西部戰線戰況에 關하여 다음과가치發表하엿다 八日夜는 全線에 亘하여 相當히 活潑한 戰鬪가 展開되엇는데 特히 모젤及자르兩河間에서는 偵察部隊의 顯著한 局地的戰鬪가 잇섯다

蘇芬會談 今夜도續行

【헬싱키九日發同盟】芬蘭代表의 크레믈린宮訪問後 芬蘭代表者는 八日午後六時부터 一時間동안 스탈린書記長과모로토프外相과 會見하엿는데 아직아무것도 發表할수업스나 會談은 今夜 또繼續하게 되리라고 消息通側에서는 結局芬蘭이 남

中立國船을傭船 英、船腹不足對策

【倫敦九日發同盟】英政府는 船舶海岸에 海軍根據地建設을承認하여 協定이成立하게되리라고보고잇다

聖上陛下還幸
富士山麓行幸四日만에

【東京電話同盟】惶恐하옵시게도天皇陛下께옵서는 지난七日宮城御發輦 沼津에行幸 八日御所를富士山麓에 進御하옵시사 親히近衛師團演習을天覽 聖戰下 皇軍의士氣가 軒昂함을 御滿悅하옵셧다고拜承되는데 다시御閱覽下의 諸般御日程을 마치옵시고 十日宮城에 還幸하옵셧다 百武侍從長以下侍從武官長 加藤行幸主務官以下 近侍들을 陪從하옵시고 午前九時十五分 行在所御出門 沼津驛에 御召列車로 東海道를 東京驛으로 向하옵셧다 東京驛에는 皇族御總代 東久邇大將宮殿下를 奉迎하옵는中 午前十一時三十分御着 東久邇宮殿下에게 御會釋 諸員의 奉迎을 받으옵셧다 天野東京驛長御先行、平山東鐵局長御先導로 곳 玉步를 옮기사 再次自動車를 타옵시고 天機麗하옵시게 二重橋正門으로부터 宮城에 還幸하옵셧다

議會召集詔書公布

【東京電話同盟】事變下第三回의 通常議會인 第七十五帝國議會는 來十二月二十三日 東京에召集하는旨의 議會召集詔書는 左와如히十日附官報로써 公布되엇다

詔書

朕 帝國憲法第七條及第四十一條에依하여 今年十二月二十三日로써 帝國議會를東京에召集함

御名御璽

昭和十四年十一月九日

各國務大臣副署

共產黨과決裂되도
不當要求는斷不容
蔣介石、最後的態度表明

【香港九日發同盟】重慶來電에依하면 六中全會에서는 現下의一般難局을 打開하기爲한 內外兩面政策을 根本的으로 審議하여 어들리인데 이에앞서 目下 重慶에 잇는 國民黨側의 何應欽、陳果夫、丁文江、葉楚傖、戴傳賢、張繼、吳稚暉、于右任、馮玉祥等은 蔣介石이 成都軍事會議終了後 急遽 十一月七日頃 重慶에歸還하자 곳 蔣介石을司會者로서 七、八兩日동안 大會議를열고 共產黨에對한 國民黨의最後的態度決定을爲한 對策을協議하엿다 同席上에서 蔣介石은國共關係의 合法的調整에는가진努力을할터이나 不合理한 要求는 非國兩黨이 決裂된다 하더라도이를拒否할터이라는 重大決意를 表明하는 演說을하엿다 右演說은最近共產黨에 對한國民黨態度를 表明하는 것이라고 重慶에서傳하는 國民黨態度는 가장 錯雜되어잇는것을 表示하는것으로 結局最後的 結論이되리라고하여 注目된다 그리고國民黨 首腦部會議에서는國民黨이 歷史的使命達成을爲하여抗戰建國의 重大責任을 질것을決議하여 이에基하여 如左한 共產黨에 對한斷乎한 態度를決定한模樣이다

一、民族革命聯盟結成及共產黨의 抗戰指導權獲得의 動機가되는 聯盟의 行動計劃組織化를 嚴拒함

一、國共合作政權樹立反對

一、抗戰에 當하여 反日諸黨의온갓活動을承認하나 이는國民黨指導下에 三民主義理論에서 버서나지안는範圍內에서 할것 그런데 이들決議案은 六中全會에 提出할것으로 보인다 (寫眞은 蔣介石)

六中全會에對抗
中國共產黨緊急會議開催計畫

【香港九日發同盟】重慶來電에依하면 陳紹禹(王明)、蕭必武等中國共產黨執行委員은 蔣介石의 數次 招電에도不拘코 重慶行에 關하여 何等回答을 하지안하엿다 한다 이는中國共產黨이 方今 延安에잇는 朱德 周恩來의 延安着을기다려 國民黨六中全會에 對抗하여 急遽 臨時緊急會議를 開催하여 同會에서 朱、周兩氏가 莫斯科에 手交된 第三인터내슈낼로부터 指令을 基礎로 新段階에對處할諸方策을 審議하기爲함이라고 解釋되는데 共產黨側의 今次計畫이 重慶에傳하자 國民黨態度는 바야흐로 國共의 再決裂은 危機에 直面하게되엇다

特務機關本部 上海로移轉

【南京十日發同盟】南京에잇서中支各特務機關을 統合하여오든特務機關本部는 今番 內事務統合의形式上 十日로써 南京에서上海로移轉키로決定 同本部長에는 上海特務機關長 竹下少將이兼任 新秩序로 되엇다 그러나 前本部長 原田中將은 來月上旬歸京할豫定이다

宮澤陸軍次官 滿洲方面視察

【東京電話同盟】陸軍政務次官宮澤胤勇、參與官小山田義孝兩氏는 十日午前六時 羽田飛行場發로 新京訪問豫定이던바 降雨로飛行이 不可能하게된때문에 豫定을變更 同午前十時三十分 東京驛發列車로 福岡向發 十一日福岡으로부터 空路新京으로 가서約三週間豫定으로 北滿各地를視察하고 歸京할豫定이다

十五分！差로
히總統危機脫出
戰慄할뮌헨爆發事件後聞

【伯林九日發同盟】히틀러總統이 危機一髮의 뮌헨爆發事件을 免하고 無事히伯林에 歸還한것은 獨逸國民에對하여 말할수업는慶福인데 九日뮌헨으로부터 當地에達한事件詳報에 依하면 總統이 이戰慄할陰謀를 免하게된것은 다음가튼 實로僥倖이라고할 豫定時間을 短縮시킨때문이다 卽 八日早朝 나치스黨蜂起記念祭는 每年十一月八日 午前八時三十分부터開始 히틀러總統은 普通一時間半演說을하고는 다시十五分乃至三十分間 옛날同志들과 懇談하는것이 恒例이엿는데 今回는 먼저開會를 半時間이나당겨 八時부터 始作하고 演說도 半時間短縮 合計한時間이나빨리 演說을마치고 그理由는伯林에 重要政務가 總統을 苦待하고잇는 때문이엇는데 그까닭에 總統은 演說終了後 옛날同志들과 惜別人事도 변변히 하지못하고 式場을 떠나 特別列車가 기다리는뮌헨驛으로 急行하엿다 列車가떠나기前後하여 突然 一大爆發이 이러나 爆發物은 總統이 演說하고잇던 바로 위에서 터진바 爆發物은 演壇에서 不過三米여떨어진곳에 잇섯다그래서 總統의演說時間이 十五分만 遲滯하엿드면 爆死는 免치못하엿슬것이라고한다

猶太人及左翼에 置疑 獨、犯人搜查에全力

【伯林九日發同盟】뮌헨爆發事件은 獨逸國民에 一大衝擊을 주엇는데 히틀러總統이 無事하다는 一般은 安心한 模樣으로 其後 뮌헨市內는 平靜化하엿다한다 爆發事件과함께 獨逸國家秘密警察은 全機能을 다하여犯人搜查活動을 하고잇는데 獨政府當局은 背後에 英國秘密警察의 손이 뻐처잇는 推測下에 搜查을 進行하고잇다 九日各新聞은 一齊히 英國秘密警察을 攻擊하는 同時에 「內敵」猶太人關係를 容赦업시 取締하라는 强硬한記事를 揭載하고잇다 波蘭戰爭勃發直後 伯林警察其他一個所 爆發事件이 이러난當時 檢察當局은 一個의 親英陰謀組織을 探知檢擧하엿는데 아직도 한黨員가 남어잇다고도傳하며 또 蘇聯과의 提携後共產分子도 漸次活動을 開始하엿다고도 傳한다 如何튼 今回의 爆發事件은 어떤方面의 計劃에依함인지 相當히 搜查가 困難할것으로 豫想되므로 搜查當局도 五十萬馬克이라는 從來에업던 多額의 賞金을 提供하여 犯人逮捕에 努力中이다

뮌헨事件을契機
獨、國內肅淸斷行

【伯林九日發同盟】獨逸國家秘密警察은 今番爆發暗殺事件을 機會로 國內大肅淸을 斷行할方針이라고하여 左右兩翼을 비롯하여 모든나치스黨의 反對派에 對하여 嚴重取締를 行할것으로 보이는데 獨逸方面에서는 게슈타포大滿洲의 口實下에 히總統에對한 神의 庇護라고 宣傳하는 「러트」이라 고보고잇다 一般民衆은 外國側秘密機關의 策動한 陰謀라는 激勵이 기괴가서 反英感情이 따라 昂揚되고잇다 따라 國內不安때문에 戰爭行爲가 或은 豫想보다 速히 斷行하게되리라는 推測도 잇고 英國을 膺懲하라는 國民의 要求도 高調되고잇는데 如何튼 이事件은 [illegible] 宣傳이 [illegible]

和平提議失敗로 白耳義株取依賴

【紐育九日發同盟】브랏셀로부터 當地에 達한報道에依하면 브랏셀株式取引所는 今九日終日取引을 停止하엿다 이는白耳義、和蘭兩國元首의 和平提議가失敗에도라감에따라 獨逸의中立國侵犯의危險이 濃厚化하게된때문에政府의取한 緊急措置에原因된것으로보인다

實業補習補助 各道配定決定

總督府學務局에서는 各道의實業補習學校補助申請(忠南、平南、咸南을除함)에 基하여 査定한結果 修業年限一年의 農業補習學校一校에關하여 七百五十圓 其他實業補習學校에關하여 千百六圓의標準으로 各道補助額配定을左와如히決定하엿다(單位圓)

京畿	四、四〇〇	忠北	三、〇〇〇
全北	七、七五〇	全南	一三、三五〇
慶北	六、三三〇	慶南	八、八五〇
黃海	三、八五〇	平北	四、四五〇
江原	七、九五〇	咸北	四、四五〇

總豫算十七億弗
루大統領陸軍擴張考慮

【華盛頓九日發同盟】米國政府는 現在의國防을 補充하고 軍備充實을 急히하고잇는바 九日官邊側으로부터의 情報에依하면 루大統領은 目下

一、現役兵及駐屯兵을合하여 常備兵力六十萬으로할것

一、陸軍裝備를 充實히하고 一朝有事의境遇에는 七十萬을誇示할수잇도록할것

을 二大目標로 陸軍擴充計畫案을 計畫中이라고한다 右計畫에 要하는經費는 豫算總額十七億弗이란 巨額에 達하여 一九四二年까지의 三個年間에 逐次支出할 豫定이며 萬若루大統領이 이를 國防三個年計畫案을 明年一月議會에 提出承認하면 明年海軍擴張計畫豫算 十三億弗과 合計全國防豫算은 三十億弗에 達할것으로 豫想된다

伯國、米國에서 續續金塊購入

【리오·데·자네이로 九日發同盟】伯國政府는 米伯金協定에 基하여지난十月中旬 米國政府로부터 二百萬弗의 金塊를購入한바 今回 다시同國은 三百萬弗의金塊購入을 하엿다 그리고 伯國政府는 十一月부터 十二月에걸쳐 四百萬弗의金塊購入을 計畫하고잇다

伊公使、葡外相과 長時間重要會談

【羅馬九日發同盟】소피아駐在伊太利公使카스테르니·오브公은 九日葡牙利外相코세이프노프氏를訪問、長時間에亘하여要談을하엿다 右는葡牙利를中心한 最近의巴爾幹、土耳其兩國의工作과 關聯되는것으로보여 羅馬에서는 九日의會見을 重視하고잇는데 아마도이것이伊太利의 발칸工作表面化의第一步가되지안흘까고 觀測된다

工兵精神의發揚 永利挺身隊活躍

【新京九日發同盟】激戰中에 堅固한 橋梁을 爆破한 齊藤部隊永利挺身隊의 行動은 國境戰中의花形의稱이잇다 卽 永利工兵中尉가指揮하는 挺身爆破隊는 지난七月十四日 戰鬪에서 「할하」河南岸의 長野部隊에配屬되어 一中島橋梁의 破壞命令을바더 同日午前十一時 部隊의 攻擊에 따라目的 橋梁을 破壞코저 前進中 敵의 頑强한 抵抗을바더 第一線步兵部隊는마침내 前進을停止치안흘수업게되엇다 그러나 勇敢한 永利中尉는 明朗코 任務를 達成코저 구든決意로써 部下를더리고 午後二時半頃 敵의砲火가 猛烈해진機會에 第一線을넘어 前進橋梁位置를 찾추어永利中尉는 決死의 部下를 四名도 死傷케되여 自身도 부상하고 넘어진바 뒤니어 八時半 中村軍曹가 代身指揮하여目的에 敵橋梁에 近接하여 巧妙히 附近敵戰車의 눈을 避하여 敵의 監視를 警戒하면서 夜十時 敵陣을 剔取 爆藥을 橋上에 裝置하여 點火하여 右岸橋脚을 完全히 爆破하엿는데 이가튼 挺身隊의 行動이 全員이 任務를 自覺하고 毅然히 必勝의 信念으로써 忍耐 大膽敢 全軍의 犧牲이되여 工兵精神을 遺憾업시 發揮 次期戰鬪를 有利케하엿다고 感歎된다

"蘇聯은日本과의 戰爭을願치안해"
孫科、倫敦서記者와會見

【倫敦九日發同盟】九日巴里로부터 倫敦에 到着한 蔣政權訪蘇特使孫科는 卽時 할리팍스外相과 會談한바 會談終了後 記者와 會見 蘇聯訪問의 見聞談에서부터 極東情勢에 言及하여 日蘇는 서로 戰爭치안는다는 見解를 吐露하엿다 卽 할리팍스外相과 會談結果 英國의對支政策에 變更업는것을 알고 滿足히생각한다 余가倫敦에온것은 英國政府當局者와의 接觸을새로히하기爲함이며 倫敦에는 數日間滯在하여 懸案의 解決에 勞力하려 또 英佛側은 蘇聯을 中立계하고저 全力을다할것이라고생각한다 蘇聯이 蔣政權에對하여石油武器等을 多量으로 供給할 能力에關하여는 蘇聯自身의 要求에 應하여 援助의 餘地 [illegible] 倫敦에는 數日間滯在하여 關係各方面과 懸案을 協議할 생각이며 蘇聯의 日蘇關係에 關하여는 蘇聯은 日本과의 戰爭을 避하고저하고 英佛의 利益을 入手할것을 생각하고잇다 蘇聯의 極東政策은 今日과 同樣으로 日本과의 戰爭은 避하고 그러고 極東의 平和에 對하여 말하면 이는余個人의 意見이나 歐洲戰爭이 終局에 直接蘇聯이 日本과의 戰爭을 願치안는다는것은 確實하다고 생각한다 고말하엿다 (寫眞은 孫科)

"蘇、世界革命企圖"
伊太利各紙蘇聯을攻擊

【羅馬九日發同盟】伊太利各紙는 七日以來 連續하여 公然히 蘇聯을攻擊하고잇는바 各紙의 論調를 綜合하면

一、蘇聯은 世界革命을 誘發코저 戰爭誘發政策을 依然中止치안코잇다 極東에서의 日支事變 歐洲에서의 英佛對獨戰爭을 擴大케하고저 全力을다하고잇다

一、蘇聯은 今後도 歐洲의 혼란을 바라고잇다

一、蘇聯의 帝國主義的侵略政策의 本性을 暴露하엿다

一、獨逸과의 關係도 甚히 不愉快하다

等等 强調하고 蘇聯에 對하여는 警戒를 要한다는바 伊太利는 獨逸과 달라 獨自의 立場에서 防共政策을 堅持하고잇는것

一、蘇聯政府는 共産國際와 同一體이고 伊太利는 아니고 따라서 共産國際의 政策을 遂行機關이라는 見解를 再確認할것

蘇聯과 가튼 文明을 破壞하는 國家의 政策을 强調하여 蘇聯의 遊戲 攻擊을 開始한것은 明白하다 蘇聯問題로부터 獨伊聯間에 意見의 差異가 잇는것을 表明한것은 伊太利今後의 政策 獨自性을 말하는것으로 이는 關係專門家의 注意를 끌고잇다

小作料統制勅令施行 兩勅令案要綱

【東京電話同盟】第八回國家總動員審議會는 九日 午前十時부터 首相官邸에서 開催하엿는데 總裁阿部首相 副總裁靑木企畫院總裁 酒井農相等 關係官及 關係委員이 出席하여 首先阿部首相으로부터 如左한人事가 잇슨後

一、小作料의 統制에 關한 勅令案要綱

을 附議하여 提案理由를 說明한後 各委員과 酒井農相과의間에 質疑應答이잇고 午後零時半一旦休憩 午後는 一時半再開午前에 繼續하여 審議를進行시켜 原案을 可決한後 다시諮問 第二十八號

一、米穀의 搗精制限等에 關한勅令案要綱

을 附議하여 提案理由를 說明한後 이亦是各委員과 酒井農相과의間에 質疑應答을 거듭하고 審議하엿다

◇阿部首相人事

政府는 最近 米穀市場의 逼迫한 事情에 對處하여 各般措置를 講究하여 그供給의 圓滑을 圖謀하고잇는바인데 米穀需給을 調整하기爲하여는 다시 米穀의 搗精制限等措置를 講究함이 緊切하다고 생각하여 愼重考究를 한 結果 이에 國家總動員法中의 必要條項에 立脚하여 勅令案要綱을 立案하여 諮問케된바이다그리고 小作料 統制에 對하여는 所要立法이 必要할것으로 생각되므로 이것도 提案한바이다 모쪼록 充分御審議하여주기바란다

人事·集會

▲金正璜(永昌農場支配人)東京大阪視察次 明日午後四時 「아까쓰끼」로出發

八面錄

◇獨逸 『나치스』 黨發祥地 『뮌헨』의 『뷔르거·브로이·케라』에서 열린同黨蜂起記念祭에는 爆彈騷動의 椿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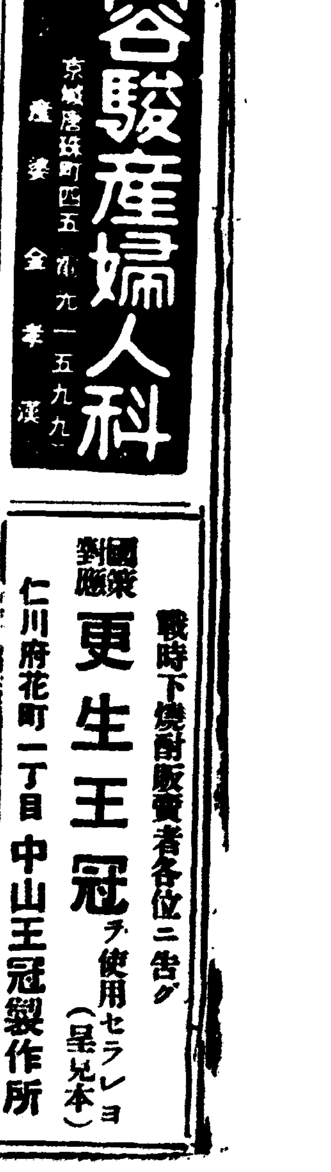
◇나치스成長의不吉徵？ 아니凋落의前兆？ 五十萬馬克懸賞犯人逮捕로 果然 이구멍을 막을수잇슬까。

◇히總統、獨逸의 戰爭目標는 『新世界建設』에잇다고、할리팍스英外相도 新世界發見이 戰爭目的이라고 放送。

◇二十世紀의 後半은 正히『新世界』前遺放送時代로군。

◇朝鮮米最高公定價格은 十日午前十一時 京城、玄米每石當四十圓八十四錢으로 發表。

◇이제는 돈가지고 쌀못살리야 업겟지。



米價全面引上으로 今後出廻圓滑豫想

萬一境遇엔"強制令"發動

총독부 농림국에서는 제일선 가기보와가치 내지에 순응하여 현미최고 도매가격을 한섬에오 원씩 올리는동시에 칠분도백미 소매가격(七分搗白米小賣價格)을 공정하여 십일부터 실시하고수 요식량의 수급조정의 원활을 하기로되엇다 최근 신곡출회기 임에 불구하고 산지에서 정조 기나오지안허 소비지의 경미소 는일부개정공정가격을 계속하여 이란 미기근이 이러는 중대사태에 이 름 염려가잇섯던것은 그동안쌀 시하자 승(自由)가격이 일반물가 에 비하여 엄청하게싼데다가정 조값까지차게 공정하엿기때문에 생산자나정미업자가 모두마음대 로매매를 할수업섯기때문이엇다 그결과로는 비밀매매가성행하여 지방적으로 쌀이도이는곳이모이 게 될테이엇던것이다 이어농림당 국에서는 이번에 가격을재개정 이근거를 판매가격으로 쌀값 을올리는동시에 정조값도 자유 가격이맷기고 경제경찰의 협력 을어더 가격엄수와 매석(賣惜) 행위를 방지하여 수급조절이전 렴을 다할방침을 세우게된것인 데 이래도 쌀이 나오지안는경 우에는 지금 법제국이서 심의 중인 총동원법 제팔조에 근거 를둔 미곡배급통제령(米穀配給統制令)을 하루바삐실시하여 쌀 의강제출하(强制出荷)를 비롯하 여 배급, 소비, 이동등의강력한 통제를하여 전시하 식량수급조 정에 만전을기할터이다

價格統制令에根據 違反者는斷乎嚴罰

實施에關한 湯村農林局長 談

미곡최고판매가격을 결정발표 한후 탕촌농림국장(湯村農林局長)은 다음과가치 말하엿다 이번최고가격의 실시기간은우 선발표하지안헛스나 대체로내 지에순응하여 확고부동의것이 다 전번발표한 가격은 자숙 가격(自肅價格)에 지나지안헛 스나 이번에발표한 가격은일 반매매가격은 가격등통제령에 근거를둔것이므로 위반하면국 가총동원법에 의한 엄중한처 벌을 면할수업는 것을 일반 은 잘인식하여 주기 바란다 백미의 소매가격은 각도지사 의 보고에따라 지방실정을되 도록 고려하노라고발표가 하 루느저진터이므로출회(出廻)는 원활해지리라고밋는다 백미값은 칠분도미(七分搗米) 로서의 격차(格差)를 보첫스 므로 일반소비자는 현미갑시 오른만치 비싼쌀을 먹지안키 로된셈이다

正租價解放이 出廻에有利

漢城精米所談

오늘결정된갑은 공정하게보 아 무난하다할것이다, 역시문 제는 벼ㅅ갑인데각군(郡)에서 개인에게 벼를상당히 내어노 흘수잇게만하면 벼는이번에퍽 유리하게되엇스니까 시내에를 어오지말라고해도 자꾸흘러들 어올것이다. 이 아주유리하게되엇슴니다 이 제부터는 벼가아마 잘들어올 것갓다 따라서 부내의쌀격정 은 칠전완화되리라고본다

飯米饑饉一消

梅木京城府勸業課長 談

백미―물론 칠분도미(七分搗米)이지만―갑시 그만큼오랏스 니 지금보다는 쌀이잘드러올 가능성은 잇스나 그러나백미 와비기면 벼ㅅ갑시 이번에는 제한이 되지안핫기때문에 벼 가더 유리해진셈이다 즉저번 에는 벼ㅅ갑을 너무졸라매엇 기때문에 이것을가지고는 백 미를 만들어냇자 손해만날염 려가 잇섯기때문에 벼가진사 람들이 곤란해하던것이 이번부 터는벼ㅅ갑세제한이 업서젓스 므로 벼가 상당히쏘다저 들 어올것갓다 설혹백미가 잘안 들어오더라도 새로 들어오는 벼를 가지고 해낼수가잇슴므 로 부내의 반미난은 이제부 터는 훨신더완화될것이다 르것가트다 현재까지 시내 에는 상당히 암취인(闇取引)이 잇서오판게로 이런점을 고려 에 넛는다면 결국 실질적으 로는 한키로에 육리, 한섬에 는 구십전정도박게는 더못오 른폭이된다 이정도를 가지고 는 쌀이 지금당장에 잘틀리 라고는 생각하기어렵다 그러 나벼ㅅ갑시제외된판게로벼ㅅ금 어오지말라고해도 자꾸흘러들 어올것이다.

闇取引警戒

泉出道經警課長 談

내년시월말까지는 다시 쌀갑 슬올리지안는다고하엿스니 이 번에쌀갑슬올린결과 쌀의출회 는 좀나아질것이다 그러나쌀 의출회가 좋조하지면 지금까 지끈경에이던사람들이 매점(買占)을할려가잇고 이에따라 암취인(闇取引)이잇슬지도몰라 서우선이방면을경게하겟다 또 한 문제는 미곡의 배급기구 가 확립되어야 완전한 근본 해결책이 설것이다

闇取引價보다 그리못올랏다

豐國製粉 談

백미―물론 칠분도미(七分搗米)이지마는―갑시 즉판상으로 는 한섬에 삼원오십오전이오

白米價四圓引上

七分搗米로본市中小賣價

실제로매매되는 백미소매가격 은비밀거래가 만하서 종잡을수 업고 이번칠분도미 공정가격과 비교해낼수업스나 구월이십삼일 에발표한 백미공정가와 오늘발 표한 칠분도미공정가를 비교해 보아 얼마나 올랏는가 하면한 섬에 삼원구십오전이 오른셈이 다 전번경성의 공정가격은 검 사합격이등 상당품이 삼십구원 삼십칠원이엇는데 경성시내에서 실제로 매매되는물등미이니 일 등미이니 하는것은 모두 검사 를 받는것이 아니므로 검사합 격 이등상당품과 어떠케 다른 지알길이 업스나 일등미를 가 령검사합격 이등상품으로 치 고서 계산해 보다면 칠분도미 는 삼십구원삼십칠전에서 사십 전을 내려야하므로 전번 공정 가격으로는 칠분도미가 삼십칠 원구십팔전이되다 그러던것이이 번에 칠분도미가 사십일원구십 삼전으로 공정되엇스므로 칠분 도미는 한섬에 삼원구십오전이 오른계산이된다

金庫盜賊

부내 합정정(蛤井町)일백사십번지조광식(趙光植)의 잡화상점에 구일오전두시반 어떤자가 들어가서금 고를 깨트리고 현금백여원을훔 쳐냇는데 이때마침 깨어가지고 밝그로나가본즉 그림자가 옹직이고잇서소리를질 럿다 그리자범인은 곳수이며밀 치고 도망을하고 말어조망식은 서대문서에 강도를마젓다고계출 을하여 동서에서는 경찰를라령 사와 내근순사까지 동원시켜수 사를시작하엿스나 결국전기와가 튼절도사건을판명하엿다

全朝鮮小學敎員에 明春부터增給優遇

共濟機關組織、月額三圓程度

임만명소학교원(訓導)에게 량 보―총독부학무국에서는 물까고 에 허덕이는 소학교원의 생활 부담을 조금이라도 가볍게하여 이세국민을 갈르키고 인도하는 충직에 보답하고저 명년사월부 터 소학교경영주체인 부제이부 특별경제와 군의교비에 공제기 관(共濟機關)을 만들게하고 경 비의 일부는서 국고보조를주어 교원매인당 월액평균삼원정도의 기금을 하기로결정하고 소요경 비를 신년도예산에 계상하여지 금대장성의사정(査定)을 밧고잇 는중이다 초등사십이원내지사십오원으로 그중에도가봉이업는 소학교원의 생활난은 사변후 물까가갑작히 뛰기시작하자 중대한 사회문제로 서 주목되기시작하여 금년늦에 는 경성부제이부 특별경제소속 부회의원들이 숫차하여 월액팔 원 오원정도의 수당을 줄것을 주장한 일이잇섯던터이다 학무 당국에서도 문부성의 소학교원 우우책(優遇策)에 자극되어 명년부터 는 오원정도의 수당을 주기로 연구중이든바 "구"의 팔을 성지 령이 의 실시를 보게된으로 칠 년부터 이를 실행하게되엇다 그러나 이것도 사세국의 ... 시적대책으로 절기와가는 으우 안을 세우게된것이다

旱害救濟義捐

普成中學 百廿圓

부내보성중학교 교직원과생도 일동은 한재지구제의연금으로일 백이십원을모집하여 거두어생 도대표 남정양(南廷揚)외 송상근(宋相根)양군이 십일아침 본사에기 탁하여와다

朴勝彬氏五十圓

부내관훈정(寬勳町)일백구십칠 번지실호 박승빈(朴勝彬)씨는한 재지재민구제의연금으로 오십원 을 십일아침 본사에기탁하여와 다

無名氏의一圓

가을비가내린어제부터는 날이 갑자기 추워저서 한지재민들 의 안부가더욱염려되는데 십일 아침에는 주소도 이름도알리지 안흔 구제금일원이 ○○면으로본 사에기탁되어 게재를 감격케하 엿다

露西亞洋服商들도 에누리戰術淸算

正札制拒否態度轉向

정찰제(正札制)도를 지키려면장 사를해먹을수가 업다고 ... 하던 덕이 장사가되던 경성시내의백 계로서아사람 이십팔명의 기성 양복상들은 경찰이지키라는 당 국의여러차례의 권고에 대하여 그동안 완강히 거절하여 왓섯스 나 남의나라에서 사는이상 그 나라가 시키는 대로 해야한다고 이기름 이십팔명전부가 오래동 안의 에누리전술을 청산하고 이 제부터는 정찰제도를 협정할것을 결의, 칠날 본정서에 이뜻을 전 달해와다 이로써 그들상점에 정 찰제도를 지키게되고 마지막까지 버티고잇던 백게로서아양복상마 저 완신히 전향하게됨으로 경 성시내의 에누리때는 완전히소 주게된세음이다

芳香 ハイナシン 一吹必殺

市內男女中等校 敎職員庭球對抗

優勝팀에本社寄贈盃를授與 十二日、東星코—트서

선생님들의 체위향상을도모―한다는 의미에서 시내에산재한 남녀중등학교의 교직원들이 동원하여 본사운동부후원하에 래 십이일오전 십시부터 동성상교 코―트에서 교원정구대항전을 거 행하기로되엇는데 남자중등교로 는 培材, 儆新, 普成, 徽文, 養正, 中東, 中央, 徽新等 十一個校에서 各三一組式 代表選手를出場하고 女子中等校에서 는 淑明, 同德, 梨花, 進明, 槿花, 好壽敦 等 十四校와京保에서 各一組式出場 하여各十一組對抗戰을 行할터이 다 이對抗戰에勝利한 男女中等 校 優勝팀에게는 本社寄贈의 優勝盃를授與할터이다

實業蹴球리그

京城實業蹴球聯盟리―그戰은十 一月十二日 午後二時부터 京城運 動場에서 行할터인데 出場팀은 京城뻬커―와 殖銀팀으로 對戰 으로되엇다

武道館記念式

市內堅志洞 朝鮮武道館에서는 十一日로 創立第十八周年을 마지하게되엇 는데 同日午後七時부터 本館內 에서 記念式을 擧行할터이라 關 係者諸位는 多數參席하여주기를 바란다고한다

冬季大會準備着手

第十四 明治神宮國民體育大會 는 夏季, 秋季의 兩大會를 마 치고 「스키―」「스케―트」의冬 季大會도 政府主催로 擧行케되 어 秋季大會終了와 同時에 準備 에 着手하엿는데 이번부터冬季大會 ...

京城運動場閉場式

京城府에서는 京城運動場을 來 十四日午後三時부터 閉場式을 擧行할터이라는데 關係者의 ...

在東京學生蹴球 農大軍이優勝

【東京】明治神宮大會와 同時에 主催의 第五回關東學生各大學綜合 蹴球大會는 既報와가치 지 난五日에 明治神宮競技場에서 ... 十一日과 十二日兩日에 決勝戰 이잇슴...

【第一回戰】 明大1―0日大 / 新大3―0專大 / 早大1―1日醫 / (延長戰) 1―0
【第二回戰】 農大0―0法大 / 立大1―0慶應 (抽籤勝) / 農大2―0新大 / 中大1―0明大
【準決勝戰】 農大4―0立大 / 中大0―0早大 (抽籤勝)
【決勝戰】 農大2―2中央 (延長戰)0―0 抽籤勝

여드레굶은壯漢 드디어窃盜

동대문정(東大門町)에 주소를 두고 잇는 ... 이가부잡혓다 ... 아침부터 굶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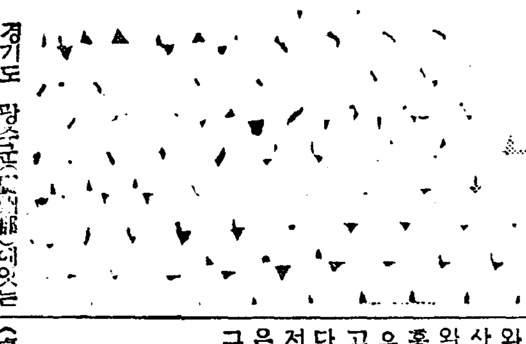
撞球窃盜犯

시적(市的)으로 ... 세우게된것이다

강원도원주군 원주면상동(原州郡原州面上洞)출생의 주소부 정인 홍명식(洪明植)은 지 난사일부터 서울에 올라와낙원 정(樂園町) 경성(京城)여관에투 숙하며 종로삼정목 ... 당구장의 ...

奉天南部街에 郵便局을新設

【奉天】 ...



楊州水鐘寺에서 "舍利壺"를發見

八百年前寶物로鑑定

경기도 양주군(楊州郡)에잇는 봉은사(奉恩寺)의 말사인 양주 군 와부면 송촌리(楊州郡瓦阜面松村里)수종사(水鐘寺)에서약 팔백년전것으로 감정되는 고려 자기와 수종의귀한 보물이 나왓다 즉 얼마전 경기도경찰부에는 전기 수종사와 양평군 용문면(楊平郡龍門面)용문사(龍門寺)의 주지 홍태욱(洪泰旭)은 수종사사 리탑(舍利塔)속에잇든 보물다수 를 팔나이엇다는 투서가 들어 와 동형사과에서 사실여부를조 사하여던바 팔아먹엇다든보물은 완전히 보관되어잇스며 그투서는 홍태욱을 모함하여 노코 지위를빼 앗으 려는데서나온 무근한것이엿 고게속하여 범인을수사하든중이 다 그런데 형사계에서 증거물로가 저오든물은 사리호(舍利壺)속에 은으로만든 우각탑이 들어잇고 그속에 한섬으로만든 구수합및九 重塔이 들여잇고 또그속에 수정 으로만든 사리병(舍利瓶)이들어 잇는것인데 이상사리호가튼것은 일직 아무데서도 보지못하든귀 물이며 총독부학무국 가등관각 (加藤灌覺)씨의 감정에 의하면 연대로팔백여년전것이오 매우귀 한것이되어 국보로지정하여도조 흔것이며 시까일만사오천원가치 는잇다고말하엿다 (사진은 동사리호)

拳銃을窃取

다시用達便으로返送

구일오전한시경 부내 정동정 (貞洞町)일번지의이호 조선신 탁회사(朝鮮信託會社)사장 곡다 희마(谷多喜磨)씨의집 박갓 유리창을 어느사람이 초소불로 녹이고 잠을쇠를따고 들어가서 이층침실벽에 걸어둔 권총과 실탄오십발 사백원짜리 시계등 양복과 화복(和服) 사 십여벌등 시가 구천여원 어치를 훔처간사실이 잇섯다 그리하여 소관서대문서에서는 중지(中地) 사법주임이하 형사를 총동원시 키어 범인을엄탐중이엇는데 구일 밤열시쯤 어느배달부가 파레틀은 물건을가지고왓다 가족이곳 열 어보니 이날새벽에 도난당한권 총과 실탄이그대로들어잇서서 서 대문서에서는 겨우한숨을 쉬이 고 수사를계속하여 십일오전다 섯시에죽첨정(竹添町)방면에서유 력한 혐의자두명을 인치하고지 금엄중한취조를 진행하고잇다

氏制度의設定으로 姓은法律上消滅

婦人네들姓字버리기아쉽거든 戶主氏字미레이름으로는쓰오

조선민사령(朝鮮民事令)의 일 부를 개정하여 조선인에게도내 지인식으로 『씨』(氏)를 정하여 사용하지안호면 안되는 동시에서 양자(婿養子)제도를 인정하는법 령는 금십일총독부관보로 공포 하여 명년이월일일부터 실시하 기로되엇다 그런데 이에대하여 는 여러가지의문이 업지안흔중 특히 『성』과 『씨』에판해서 더 밝혀둘점이잇다 즉 『씨』라고하 는것은 각각그가호(家號)를 말 하는법률상명칭인데 『씨』를설정 하여사용하게되면 자연히 법률상 으로인정하는 성(姓)은 업서지 게되는것이다 그러나 법령에종 래가지고잇든성은 쓰지못한다는 조문이 업스므로 이등(伊藤)이 니 목촌(木村)이니 하는 내지 인식 『씨』를 사용하더라도 종 래 가지고 잇는 성짜를 그대 로 너허서 사용할수가잇다 가 령 김영출(金英出)이란 사람이 이등이란 내지인식『씨』를사용 하게되는경우에는 이등 김영출 (伊藤金英出)이라고 할수가잇다 그러나 종래 가지고잇는 성인 김짜를넛는다고해서 그것이 법 률상 성으로 행세하게되는것이 아니고 『김영출』이란석자가 일 흠이되는것이다 또『김영출』이란사 람이 김(金)짜를『씨』로정하게 될때에는 김은 씨가 되는동시 에법률상 인정은 하지안터라도 종대의 자기성을그대로 가지고 잇게는 되는것이다 그런데 일반조선인가정에 이 대파란을 일으키는 중대문제가 또하나잇다. 즉『씨』를 내지인 식으로 정하든지 종래가지고잇 던 성짜를『씨』로정하든지 하 여간 씨를정하지안호면 안되는 데 그『씨』는 전가족이 전부 쫏지안호면 안되는것이다 다시 말하면 호주의『씨』가 김(金) 이라고한다면 그안해 제수(弟嫂)며누리 손자며누리도 전부 김 가로 따르지안호면안된다이것은 이법령실시이후에 결혼하는사람 에게만적용하는것이아니라기혼가 정에도 전부적용하게되는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조선각가정부인들 은 전부그호주의『씨』를 따르 게된다 따라서부인들은 각각자 기의성을 전부남편의씨대로 고 치게된다 그러나 어찌도 며세만 이라도 자기의성짜를 가지려면 이러케는 할수가잇다 가령김인 숙(金仁淑)이란여자가 박대양(朴大陽)이란 호주의집으로 출가한 경우에 김인숙이가 자기성짜를 가지고시프면 박김인숙(朴金仁淑) 이라고는할수가잇다 그래서『박』 은씨가되고김인숙은명(名)즉이 름이되는것이다

同姓同本도結婚 戶主"氏"로만統一

岩島法務局事務官 談

이에대하여 총독부 법무국 암도사무관(岩島事務官)은 다 음과가치말한다 내지인은 본래"씨"만잇고 성(姓)은 업다 조선인도 이번에 "씨"제도를 실시하면 실제적 으로 성이업서질것이다 내지인 식"씨"를사용하든지 종래가지 고잇는성(姓)짜를『씨』로 사용 하든지성짜를 그대로 남겨둘수 잇게된것은 조선호적령에 동성동 본(同姓同本)의 결혼을 인정하지 안케되엇스므로 그것을구별하기 위도록하여 아직남겨두는것이다 그 러나 장래 동성동본의 결혼을 인정하게되면 종래가지고잇는성 짜를 남겨두지안케 될것이다 안해나 제수나 며누리나 모 두그집호주의 씨를 따르게되는 데 이것은 민법제칠백사십륙조 에 명백히하엿다 즉 어떠한 집 을결혼하고 그집가족은 전부 그집호주의『씨』를 따르라고되 어잇는것이다

連日滿員謝禮 一週年記念粗品進呈 東一銀行西側 バー白鳥

攻玉小學校學藝會

부내 공옥심상소학교(攻玉尋常小學校)에서는 십일일 오후한 시부터 동교제십오회 학예회를 연다고 하는데 순서는 제일부 제이부두부로 나누어잇서 재미 잇는여러가지 푸로그람이 잇다 한다

오늘의라디오

第一放送 ▲午後六時(東)童話劇 ▲六時二五分(東)講演 ▲八時(大)浪花節 ▲八時三〇分(東)小說 ▲九時一〇分(東)時事解說

第二放送 ▲午後六時 장은音樂會 ▲七時三〇分 講演 ▲七時三〇分(咸興) ▲八時(東)案內 新民謠 ▲八時三〇分 野談 ▲九時

쌀갑시

쌀갑시 한섬에 오원올랏 목팟 다▲오늘비로소 올랏것은 아니 고 사실은전에 도 공정가격을 무시하고 내밀히 공정가격이상으로 매매가되어도 와다,▲그러나 이번은 공공연 히오원을올리고보니 그만큼쌀갑시 오른것이 더커지며 그영향은 다른 곳에도미치지안흘수 업슬것이 법 써부터염려안되는바이니다▲그 결과 당장에문제되는것은 그동 안에도 밤봉에 시달리던 봉급 생활자는 다시오르는 물까에 얼 마큼 생활의위협을 더밧게될것 이다 그러나그도할수 업는것은 쌀갑시낫기때문에 쌀가진사람들 이 내노치안허 돈가지고도 쌀 을 살수 업던것보다는 낫지안 흐냐? 쌀이 순조로히 풀려나 오도록 하는것만이 우선문제라 고……▲한문제의 해결은 언제 나 다시한문제를 이러케해서제 공하는것이다

羊毛皮卸売 防寒靴裏用 各種 淸津 和信皮革店

명안수 明眼水 안병령약 眼病靈藥 眼疾에는 明眼水가神効 新發賣二十錢 十錢 二十錢 カガビリシン本舖 登錄商標 樂天堂製藥株式會社

手足 ...

社員採用 年齡二十五歲以上中等學校卒業程度ニシテ敎養アル方月給及手當ハ經驗有ル者ハ特別待遇ス 京城府黃金町 ... 崔宇植

京城府本町 ... 東洋工科學院生徒募集 土木豫科(晝間部)六個月修業 入學資格小學卒業程度 土木科(夜間部)二個年卒業 詳細問覆(郵便切手) 京城府 電光(3)四一七四番

今이治療의最好季 初期梅毒、慢性梅毒、潛伏梅毒、先天梅毒、梅毒性內臟疾患 沃素劑를極量應用한 重症用 毒掃丸

燒酒藥酒再製加入原料大推奬 試用品五拾錢 京城府 ... 振替京城七〇〇〇番

洋服職工 生徒募集 賣家住宅 富士ケーキ燒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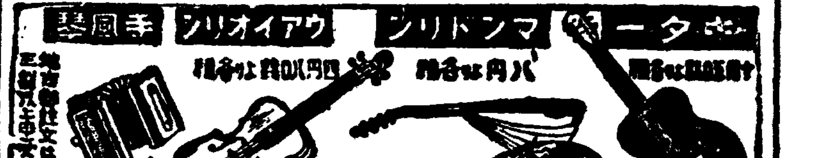
朝報案內 朝鮮日報咸大勳先生大作!! 秋風前夜 平文社

ヤマハ ... アヲゾ ... 手風琴 山口樂器店鍾路支店

十五夜打鈴 新民謠 OKEH 오케 가요의漫遊記

京城北阿峴町一 慢性病療養 レントゲン科 延禧莊医院 院長 全秉勳 電光③四三六九

一和洋食과喫茶一 여러분의食堂 半島會館 美味第一 親切第一 半島會館이自負하옵는美味와親切은여러 분에게 꼭 滿足을드릴것입니다 꼭 一次來館하시와半島會館의眞味를맛보시소서… 京城鍾路(YMCA越便) 電光1456



金融支所開設 忠南瑞山郡瑞山邑(元專賣局出張所跡)에 當支店金融支所를開設하옵고 不動産擔保貸其他金融業務取扱을하옵나이다 十一月二日 東洋拓殖株式會社大田支店

槪說 新文學史 (五)

林和

第二章

第二節 精神的準備

雜誌(續)

다시『夜雷』의目次를보면

緣起書 興國根 論說 自由說 發刊辭 金成喜 無能狀論 玄采 社說 國辭 海鶴 李沂伯曾 國辭 三東 朴殷植 時事評論 國語維持論 朴殷植 滿洲國遊 學生 玄公廉 學術 現化의 主旨 李弼善 生理學 申海容 肉食植物 尹泰榮 歷史地理 論 水大師 玄采 王仁設立 太子 金剛山 文圃 滑稽小說 尹泰榮 紀源 七言古詩 荷亭山人 古風 夜雷有感 金鍾申 그他 詩歌 成

三國 朴殷植 李海臼 金商鎬 金永玉 [illegible] 金大 啟蒙의 利所 [illegible] 國 用利害 安國善 申海容 [illegible] 金東完 光武十一年 月分、外國 [illegible] 世界談 [illegible]의實踐、通商의 財、人權의 優劣、米國 東洋의 價値 [illegible] 日米條約改正問題 朝鮮의 [illegible] 財産 內閣 [illegible]

以上의 目次를 一瞥하야 特色잇는 題目은 金成喜氏의『自由說』玄采氏의『無能狀論』朴殷植氏의『國語維持論』等이다 自由說이 民權을 主張하야 立憲制의 要求를 暗示한 點이라던가 無能狀論이 그때의 政府를 諷刺함이라던가 國語維持論이 漢字의 廢止及 制限을 主張하야 諺文의 專用과 普及을 勸한것은 모두 單純한 啓蒙이라기보다 一定한 政治的인 或은 文化的인 要求와 批判이라 볼수잇다.

더욱이 『國語維持論』이 [illegible] 評論이란 [illegible] 씨워진것은 『夜雷』가 계속하여 時事評論 雜誌로서의 自己 一面을 [illegible] 한것이다.

全篇의 編輯方針 乃至 目次의 編成에 잇서서 지금보면은 中學講義에 실을만한 程度의 民衆啓蒙雜誌로서 『西友』나 그前의 當時雜誌와 大差가 업스나 『夜雷』가 學術部門 [illegible] 이러한 評論一班을 [illegible] 너흔것은 다른 雜誌와 [illegible] 使用하라는 實思의 表現이기도하다.

『朝陽報』가 또한 이와 類似한 雜誌로 月二回 發行하고 目次編成은 社說 論說 教育 海外雜誌 內地雜誌 叢談 寄書 [illegible] 勿論 論說이며 諺漢文을 混文했다.

趣旨에『益本社之目的은 因在乎 [illegible] 하며 扶護國權이』라하야『夜雷』와 거의 同一한 目的을 使命으로 하엿다.

이러한 雜誌가 一般民衆의 啓蒙과 政治評論을 해오는 反面『家庭雜誌』가튼것은 朝鮮婦人雜誌의 嚆矢로 專혀 純諺文으로 婦女啓蒙에 主力햇으며『자선부인회잡지』가튼것은 亦是 純諺文으로 婦女間의 慈善運動의 普及을 爲하야 努力하엿다.『數物學雜誌』『商業界』『法律界』가 다 各自의 領域에서 이러한 일에 從事하엿다.(寫眞은夜雷表紙)

學藝

批評의問題

認識의確立과評論

尹圭涉

(그러므로 嚴密히 말하자면 過去의 批評이 第三의 立場을 時代意識이니 社會意識에 求했다느니 보다도 그 意識가운데 內包되어잇는 世界의統一的인 批評體系에 求해던것이다)

따라서 第三의立場이 時代의 體系에따라 動搖한다는것도 **人間思想**史의 要約으로서의 認識이 歷史가아니라 論理일바엔 그 認識의 發展에따라 움죽인다고 할것이다.

다음에 氏가말하는 새로운時代의 論理도 그것이 第三의立場으로서 要請되는것이라면 그것은不可避的으로 認識論的인論理를意味해야할것이며 그것은論理의獨得을 다시금 認識論的機能을다하는데잇서서 成就될 性質의것일것이다.

要컨대 氏를말한다면 氏가말하는 第三의 立場이니 새로운 時代의論理이니하는것은 結局認識의問題에歸着된다고본다. 따라서 우리에게 남는問題는 亦是 認識論的課題이라고 할것이다.

認識에잇서서 적경 우리들이 問題삼는것은 一切의 認識對象이 感覺印象에서 出發된다는事實이다. 따라서 對象에 對한 人間感覺의 主觀的 材料만을 根據하게 된다면 科學的(客觀的)認識에는 미칠날이 업는것이며 及其他는 評價의 科學性(客觀的)은 拒否되지안흘수 업는것이다.

그러나 本是印象과對象은 主觀과 客觀와의關係에잇는것이며 우리인간(人間)에게는 다시 對象과거기에서 反映되는 우리들의印象과를 對比하는 感官의 能力이라것이 잇는것이다 實로 우리의認識은 이 能力에依하여 成立되는것이며 批評은 거기에 이미 出發하여잇는것이다 이것은오늘의 모든科學의

認識論的 基礎를 이루고 잇슬뿐만아니라 우리의認識 나아가서는 評價로하여금 客觀性을갓게하는 根本的契機이다

따라서 評價의基準이란 決코 現實로부터 飛揚된 어떤規範에서 나오는것이 아니라 對象그自體의 客觀的인 認識우에서만이 導出되고 作用하는 한尺度에 不過한것이다 그러므로 評價의出發點은 恒常 모든 絕對的인規範을 否定하는데 잇어야 一段 尺度를 갓게되면 그것의 絕對는 必然的으로 體系와 規範을 用意하게되며 事件엔 世界의 組織的인 原則的인 批評體系에까지 發展하지 안흘수업는것이다.

여기에잇서서 우리는 우리論理에 隱蔽되어잇는

批評基準의 喪失이니批評精神의 萎縮이니하는 모든 問題가 우리들의 認識過程에서 다시말하면 原理그것을 어떤絕對規範으로 錯覺하여 한것거기에 依託하려는데서 또한 그것이 不可能하다고하여 한갓 自己個性에 籠居하려는데서 醱出되엿다는것을알수잇다.

그러타 實로 모든 禍根은우리의 認識過程에잇다고할것이다 우리는 勿論 오늘의 現實이너무도 錯綜되어잇고 우리의 精神이 너무도 孤立되어잇음을모르는바가 아니며 또한 認識에잇서서 歷史的社會的制約을 認定하지안는것이 아니다 오늘은 어떠한 時代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時期에잇서서도 歷史가 우리의認識을 停止시킨적은 업스며 人間의 認識(思想)史는 끈힘업시 發展하여오는것을 잘알고잇다.

筆者는 以上에서 우리의

認識機能이 體系를 갓고 組織的인方法을 가질제 認識機能이 發動的인 批評原理가 確立된다고 말하엿다 只今 우리에게 맛겨진 課題는 그가는 認識機能의 全面的發揮이다 그것은 文學의內部에서 뿐만아니라 널니 現實가운데에서 具現되어야 할것이다.

이가는 見地에서본다면 評論의指標作의 恢復 文藝運動의展開 그것도 그다지 먼날의課題는아니라고 밋는다(完)

世界의귀

蘇聯新聞漫畫家

獨逸이 英國을揶揄

歐洲戰亂이 이러나자 英國에는獨逸을揶揄한 漫文漫畫가 續出하더니 요지음 蘇聯內新聞紙에는 獨逸便을드는까닭인지 英國을揶揄하는漫畫가 盛行하고잇다고 外國通信은傳한다. 그中傑作의하나로 英國이 宣傳만하고 조금도戰意가업는것을諷刺한것으로이런것이잇다 英國飛行將校가 獨逸領內에 뿌리고『팡플렛』를 飛行機에싣고 方今떠나려는 部下에게訓示하기를 『자네 팡플렛트를 뿌릴때에는 注意해서 잘헤처서 뿌려야하네 그러지않고 뭉친채뿌리다가는 獨逸軍士를 다치기 쉬우니까─』라고 햇다는것이다

老柿山莊記 (下)

金珖燮

深·秋·隨·想

나는 처음에는 五柳先生의본을바더 楊柳를 만히 심거볼가고도 생각한적이잇섯다. 너무지튼 감나무고늘은 愛樹한 內心思를 더 어듭게할가 저어한 때문이엇다. 그러나 하해 두해지나고보니 妖艶한 버들가시보다는 차라리 어수룩한감나무가 情이두터워진다.

나는 또 老柿山莊에 이름갈나무와 함께 調和될식허야할 여러가지 나무와花草를심기에 한동안은 게을리 하지안햇다. 爲先 나무로는 대추며 박이며 우리며 碧梧桐뿐과 끗스로는木蓮 佛頭 丁香 牡丹 月桂 玉簪 山茶 黃菊 [illegible] 두서너그루식 심거노코 겨울에는 所謂 溫室이랍시고한坪이나 겨우될락말락한 面積을 四五尺내려파고 네손으로 門을찌다 유리를끼운다해서 꽃잣게 만드러논대다가 한두盆 梅花와 蘭草를너코 水仙을 기르고하면서 날이날시금 물을주기에 世事의 어찌됨을 모를만한 지경이엿섯다. 이렇게 하고 잇노라니까 이모양이나마 우리山莊의 살림을 누가보면 참味가 나겟다고도 하고 자기네도한번 이렇게 살어보앗스면하며 부러워하는 人士도 잇섯다.

그러나 나가튼 사람의 性質으로서 그런生活이 오래 繼續될理는 萬無하것이엇다. 나는한두해를 지나는동안어느듯 暇엔지 틈을내려다보는 마음이 차츰 줄어들고 필시 어는 본마음의 [illegible] 發動하기 始作햇다. 그조아하던 감나무도 싱싱해지고 花草에들이 자욱해도 못본체하고 어떤놈은 물을 어더먹지 못하야 마르다 못해 빼빼 꼬이다가 及其也는 꿀아 죽는놈들이 非一非再엿만 그래도 나는 泰然해 잇섯다. 大體로 花草란놈은 異常한것이어서 그놈을 날마다 精神을써가며 되려다볼적에는 別로 힘들이지 안터래도 意氣가 壓大할것처럼 무럭무럭자라나는듯이 아모리 肥沃한土質과 規則的으로 물을어더먹는境遇에잇스면서라도 主人에게벌써 사랑하는마음이끈어지고 되면되고 말면말다는主義로나가는데는 제아무리한 萎種이라도 배배꼬이지안는놈을 別로보지못햇다 花草임에정 아마도 情이서로通치안는까닭일가.

나의 게으름은 이터트시 하야今年드러서면서부터는모든것을 일허버리다 시피햇다. 그것은 어느때고 한번은보고야말 運命이라고 [illegible] 感하고 잇섯던것이엇다.

그러나 나는비록게을러서 花草를 거두기에 誇衛하기는햇지만 그래도 해마다하는님께난 모든것을 매씨고잇섯다. 마르다못해죽을것이라도 해죽어가던놈도 철따라 靈風과 細雨의福分으로 밤등안에 개울물이 潑潑하게내려가고 뿌리끗마다 물스기가 포근히 배어오르면 네활개를 치듯키 새 기운을 뽑내는 것들인데 今年도 亦是 나는 설마 비가 오려니 오려니 하고 기다렷더니 설마가 사람을 죽인다는 격으로 장마철을 지난지 한달이가고 두달이가고 서달이또가고 하여도비가올생각은 꿈에도 하지안는다 山골개울물이 말으는것쯤은 또 용혹무괴이려니와 그팔나던 샘물이 마르고 食水가 떠러지고 나종에는 멀정한나무이파리도 눌시안흔채 뚝뚝떠러지는것이 아닌가 연다라 팝나무가 죽고대추나무가 죽고칠숙이죽고 하야 平年에 보지못하던 草木들의 떼송장이 온 마당에 질펀해진다. 그러나 사람들은 죽지못해 한지게에 十錢式하는 水道물이라도 사서먹는다지드래도 그러타고 그만흔 나무들을 一一히 十錢어치식 물을사서멕일 氣力이 내게는 또한 업다. 그러고보니 나는 점점 焦燥해지기만햇다. 가지마다 보기조케 매달렷던감들이 한개두개 시름시름떠러지고 눌흘러린 감잎이 哀惜한곳 내마음을홀러오는것이엇다. 뿐만아니라 그 보기조터나무등치가 한결한결껍질이 베겨지기始作한다. 나는 눈을 어느나무보다도 감나무가 죽는구나 하는생각에 精神이번쩍채려지엇다.

主人이 감나무를爲해 살고잇스시피한 이老柿山莊의 진짜主人公이 죽는다면이 될진댄인가. 나는곳모든花草를 犧牲하는 한이잇드래도 이 감나무만은 救해야겟다는一念에서 每日가치 十錢짜리 물을사서 너지게씩주기로햇다. 그러나한번감시 受難을겻근 감나무들은 숨쳐럼活氣를보여주지안흔채 가을이오고落葉이지고햇다. 여니해가트면 至今한창붉다오르듯 보기조케 매여달렷서야할 감들이 今年에는거의다 떠러지고명개남은놈들조차 敗殘兵처럼 無氣力해보인다.

主人을모만난 그나무들이明春에다시씻슨듯 새엄이 돗고 시원한 그늘을 이老柿山莊과山莊의 主人을 爲해 果然지워 줄것인지

─己卯十一月四日 於老柿山莊─

獵書餘談

蠹魚雜錄……終

洪淳赫

九、天主敎關係書

나의 변변치 안흔文庫에 君干天主敎關係書籍이잇다 그中의 하나는『달레의名著朝鮮天主敎史』二卷이니 勿論佛文原書이다. 昭和六年十月, 京城府大에서 열린朝鮮活字印刷資料展覽에 出陳하엿다가 바로一週日前에 열린朝鮮天主敎史料展覽에 參陳못한遺憾을 얼마간이라도 풀어볼가하고 明治町天主敎堂을차저가 當時一般에게 頒布한 展觀目錄을 엇고서 작난삼어『달레』의著書를 살수업것는가 물어보것이『어떤엄는 神父한분이 팔것다는말이 잇섯습니다』라는 對答이엇다. 舊書代를 두고 왓드니 果然 十圓이면팔것다는 回答이 잇서 K友에게 附託하여 차저온일이잇섯다. 그後 韓佛文法을 이와 가치 試驗하엿스나 成功하지 못하엿다.

韓佛字典(一八八○刊)、拉韓小字典(一八九一刊)은 들다 朝鮮語辭典 書誌史上 稀覯本中에 드는 珍書인바 韓英字典初版(一八九七刊)과 아울러나의 東藏文庫의 秘藏本이다. 昭和八年 여름 咸興商品陳列館(現在 公會堂)아페 조고마한 古本露店이 잇섯다. 書籍外인 내가 露店이라고 敬意를 表하지 안햇을리 업섯겟스나 靑柳氏의 朝鮮研究會本 一三冊이 띄엄띄엄으로 나의 文庫니 사들만한 書籍이 업섯슴으로 適當이 여겻다 그後 一二次 흑시나 하고 보앗스나 마찬가지엇스므로 다시는 돌보지도 안엇섯다. 그後 十月初旬 볼일을 보고 집에 돌아 가다가 문득 이즌것을 생각한나는 돌처서 가는길에 左側을 通行한 나는 그 露店 아플 지나지안흘수업섯다. 버릇이란 容易히 고치기 어려워 보잘것 업다고 認定한 露店이나마 그아페지나게된以上 自然히 視線을 그리로 向하지안흘수업섯다. 이제까지 보지못하던 背皮四六倍版의洋書、或은『게일』氏의韓英字典初版이 아닌가하는 好奇心으로 店頭에 가까히가서 仔細히아니볼수업섯다. (나의 가지고잇는 韓英字典에는 序文이 떨어저나갓스므로이다. 再版에 初版序文이 실리어 이것을 所藏하엿스나.) 그러나 놀라지말라 一金二圓五十錢의 定價로를 부친 韓佛字典이아닌가. 이冊을 손에 든 나의 마음이 얼마나 두근거리엇슬것을 獵書家는 짐작하실 것이다. 그러나 多年의 經驗의 辛酸甘苦를 겪은 나로서 歡喜의表情을 露骨的으로 나타나 보일리는 絕對로 업다. 冊子를 뒤적 뒤적 하는타니 店主公 어떠케 보앗는지「三圓도 좃습니다」한다 사기로 決意는 이미 하엿스나 一錢이라도 보시기오」하고 내어보이는것이 今始初의出앗니나 初見인『拉韓小字典』의 四六版이다. 定價一圓五十錢 두券에 四圓만 달라는 店主의 懇請이다. 이러케되면 파는이의 無知도 無知려니와 사려는나도 나지안흔할수없다. 平素의 貧窶이그날에 限하여 도무지 하여온이업섯다. 겨우 一圓(俸給生活時代나 俸給生活時代에 何等 다름이 업는生活의 至困만 맛기고떼에서 기다리라하고 이웃商店에서 慌忙하게 知友에게電話를 걸어不足金을 가지오게하여 산것이다. 너무도 싸게 산 良心上 背負이 商主의身元을 알게되고 그가 天主敎에相當한地位에잇는분으로 書籍에 어同情하여 그가 가진天主敎關係書籍雜誌를 全部 相當한價格에 引受하여 店頭를벌어 開店케 하엿섯다. 그가 가진 書誌關係의 佛文 原書가若干잇섯건만 나의 文庫의關係範圍以外의것으로 사두지못하엿슴이 遺憾이엿섯다. 그後 購入한것中에 黃嗣永帛書의影印과 京城 明治町 天主敎堂發行의 京鄕雜誌(一九○六創刊) 二十六年分 其他가잇다

孫子講義

李昇圭 (十九)

善守者는藏於九地之下하고善攻者는動於九天之上이라故로能自保而全勝也니라

(註) 梅堯臣이日九地는 기퍼서 可히 알지못할을 말함이오 九天은 노파서 可히測量치못함을말함이니守備가周密하고攻取가迅速한것을말하미라. 杜牧이日 守者는 韜聲滅跡하여 幽比鬼神이 在於地下하여 不可得而見之오 攻者는 勢迅聲烈하여 疾若雷電이 如來天上하여 不可得而備라 九者는 數之極이라

(解意) 잘직키는者는 九地의下에감추고 잘치는者는 九天의上에 動하는지라 故로能히 스스로 保存하고 온전이 이기느니라

(附論) 九地九天의解釋에對하여 或者는天一遁甲오느 解釋하나 이는 人의迷信만助長할따인故로 深論치안는바이다

見勝이不過衆人之所知면非善之善者也니라

(註) 衆人의所知는 이미나타난形을보고 良將의所知는 恒常 나타나지못한形을 보느니라

(解意) 이길것을보매 衆人의아는바에 지나지못하면 善의善한者가아니니라

(例) 漢將韓信이 趙王歇을칠새 井陘口에 이르지못하여 三十里에머무르고 夜半에 傳令하야 輕騎二千을 뽑아서 사람마다 赤幟(붉은旗니漢의旗라)한介씩가지게하고 令하여가로되 趙軍이 나의 走함을보면 반드시 壁을비우고 우리軍을쫏차오거든 너이들은 빨리趙壁에 들어가서 趙旗를빼바리고 赤幟를세우라하고 裨將으로하여금 各隊에밥을메기고 令하여갈오대 오늘은趙를破한後에 모아먹자하니 諸將이 다밋지아니하엿다 韓信이萬人으로하여금 먼저가서 背水陣을 베풀게하니 趙軍이 바라보고다크게 웃더라 平明에 韓信이 大將旗를세우고 북을치며井陘口에나가니 趙軍이城壁을열고치거늘 크게싸우기를한참하다가 韓信이거짓 敗하여 북과旗를버리고 다라나니 趙軍이果然總出動하여 城壁을비고쫏는지라 韓信이먼저보낸떤 二千騎가 趙壁에달려들어가서 趙旗를다빼여버리고 漢의赤幟를세웟섯다 趙軍이韓信을쫏차가니韓信은벌써 水上軍에늘어가서잡지못하고水上軍은다죽기를限하고싸워서 可히破하지못할지라 趙軍이 趙壁으로 도라오다가보니 壁에는난대업는漢나라旗가세워잇고 趙旗는하나도업는지라 趙軍이 크게놀나四散逃走하거늘 漢兵이 兩便에서 夾擊하여 크게破하고 趙將陳餘를베이고 趙王歇을生擒하엿다이가곳 衆人의 알지못한것을 韓信이 먼저보고 이긴一例이다

＝西＝行＝詩＝抄＝ (四)

月林장

……白石

『自是東北八○杆熙川』의 標말이 섯긋 돌능와집에 소달구지에 싸리신에 옛날이 사는 장거리에

어니 근방山川에서 덜거이 껙껙 검방지게 운다

초아흐레 장판에

산 멧도야지 너구리가죽 튀튀새 낫다

또 가얌에 귀이리에 도토리묵 도토리범벅도 낫다

나는 주먹다시 가튼 떡당이에 꿀보다도 달다는 강낭엿을 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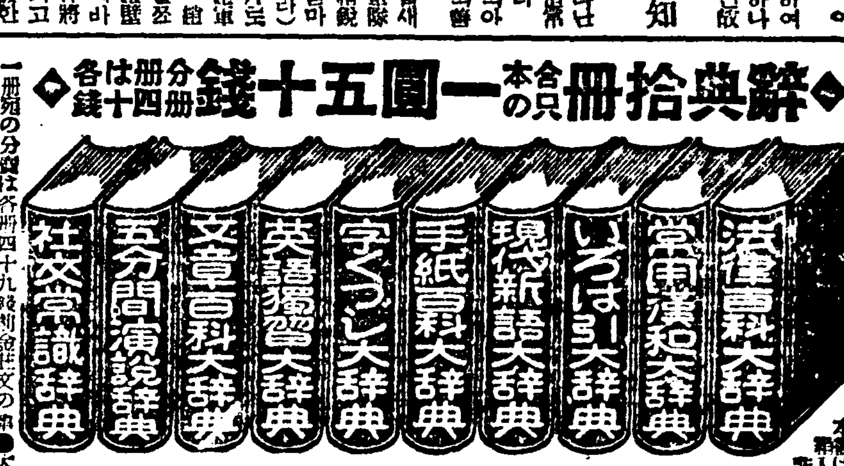
그리고 물이라도 들듯이 샛노라티 샛노란 山골 마가슬 벼테 눈이 시울도록 샛노라티 샛노란 햇기장 쌀을 주물으며

기장쌀은 기장차떡이 조코 기장차랍이 조코 기장감주가 조코 그리고 기장쌀로 쑨 호박죽은 맛도 잇는것을 생각하며

나는 기뿌다

緊急處分 大投賣斷行

辭典拾冊 合本の只一圓五十錢 (分冊は各冊四十錢)



特別代用景品進呈 模範日記

緊急處分 大投賣斷行

國民中學講義錄

▲小學卒業後上級學校へ行けぬとて決して悲觀する事はない ▲タッタ二圓二十錢で中學卒業と同等の學力が得られる!

中學全科講義十二冊合本を只の二圓二十錢に投賣す

立身出世は先づ中學講義から!

手紙上手は立身出世が早い!

▼出征兵士慰問の手紙を始め其他手紙の事なら何でも解る大評判の手紙の本

(不許返金)

一圓三十錢 送料十五錢

進呈景品

大阪市東淀川區西町四

合資會社 國民書院日報係

振替大阪五壹六貳壹番

發賣元

ムーレクトーレ

레 ー 도 구 ー 레 무

참으로놀나울만치

얼굴이나、손이아름다웁게됩니다

아츰에나저녁에레ー도구ー레무를 잇지말고、바르십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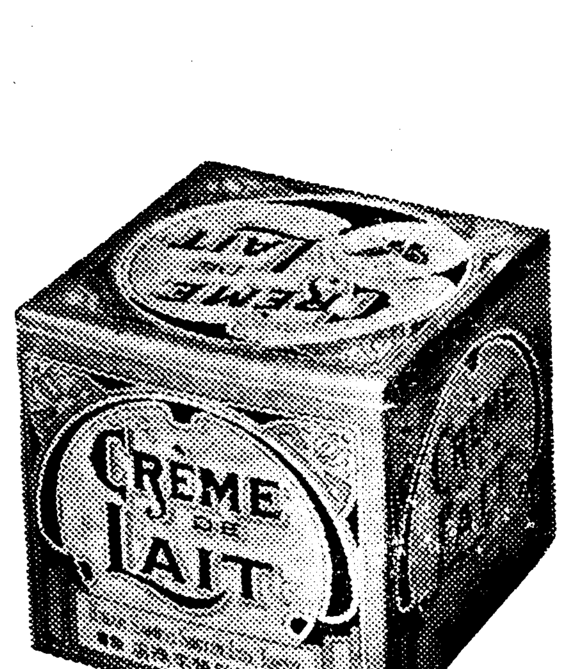
잔주름이업서지고、生氣잇고 潤態잇는 살결이되며 健康美가넘처흐르는 血色조흔살결이됩니다

그리고 짠사람과가치 아름다운살결이됩니다

一、살결을 아름다웁게하고

二、化粧바탕을조케하고

三、面刀後에곡이서야할것



レート化粧料本舖 東京 平尾贊平商店

玄米銘柄間及 等級間格差表

十日總督府에서는 新穀의公定米價를 發表하엿는데 玄米의銘柄間及等級間格差表는如左하다

玄米銘柄間格差表(石當)

銘柄	等級	格差
◎銀坊主	四	基準
◎印七〇錢格上		
◎	四 (一)	一五
◎穀良都(□印)	四 (+)	二五五
◎錦	四 (+)	二一五
同上		
◎陸羽一三二號	四 (+)	八五
◎雄玉 五〇錢格上	四 (+)	五〇
◎多摩錦	四 (+)	五〇
◎印 一〇〇錢格上		
◎赤神力	四	同
◎銀坊主	四	基準

一月一日부터十月末日까지는◎과同格

一、龜印、牛印 一〇錢格上
二、(全印、長不二驪印、其不二村印) 七〇錢格上
三、◎印、◎印、◎印、◎印 五〇錢格上
四、◎印、◎印、□印 一五錢格上
五、南原 四〇錢格上
六、鎭川、安城、稷山、陰城、堤川 二五錢格上

◎瑞光 四 (一) 一〇
◎穀良都(□印) 四 (+) 二 四六
一月一日부터十月末日까지는◎와同格
◎錦 四 (+) 二 一六
右同
◎銀坊主 四 基準
一、榮山浦、法聖浦二〇錢格上
二、松汀里、長城 三〇錢格上
三、◎印◎印◎印◎印 四〇錢格上
◎榮光 四 (一) 三六
◎ 四 (十) 六八
◎印 三〇錢格上

◎多摩錦 四 (+) 八八
◎中生神力 四 (+) 九八
◎早生旭 四 (十) 八八
◎雄町 四 (十三) 七八
一月一日부터十月末日까지는◎와同格
◎ 四 基準
◎穀良都(□印) 四 (+) 一〇
一月一日부터 十月末日까지는
◎日本晴一〇錢格上
◎銀坊主 四 (+) 二六
◎瑞光 四 (+) 七六
◎日進 四 (+) 七六
◎陸羽一三二號 四 基準
寶川、郡山、定州、古阜、醴田
二〇錢格上
◎銀坊主 四 (一) 五〇
◎銀坊主 四 (+) 一二〇
◎旭光 四 (+) 一〇〇
◎愛國 四 (一) 八〇
◎陸羽一三二號 四 基準
(新義州)
一、東拓、龍岡、浦不二印大 一〇〇錢格上
二、不二印小『마-크』三〇錢格上
三、不二印小『마-크』八〇錢
格上
新上、咸興 八〇錢格上
四 (一)一、〇〇

各米穀取引所 最高販賣價格

各米穀取引所의 最高販賣價格은 十日總督府로부터 發表되엇는데 이미各米穀取引所는 朝鮮米穀市場會社가 開業하기까지는 閉場中이다

玄米等級間格差

一等	二等	三等	四等	五等
(十)六	(十)四	(十)二	基準	(一)二

은 맛당히 公表할것이로되 形式的으로 發表한데 지나지못하다

一、仁川 (1)玄米

銘柄	等級	最高販賣價格
◎銀坊主	四	四一、二五
○印七〇錢格上	四	四一、二〇
◎穀良都(□印)	四	四三、九〇
一月一日부터十月末日까지는◎과同格		
◎錦	四	四三、五〇
一月一日부터十月末日까지는◎과同格		
◎陸羽一三二號	四	四二、二〇
◎雄玉	四	四一、八五
○印 五〇錢格上		
◎多摩錦	四	四一、八五
○印 一〇〇錢格上		
◎赤神力	四	四一、二五

(2)正租

銘柄	等級	最高販賣價格
銀坊主	三	一一、五四
◎	三	一一、五六
穀良都	三	一一、三五

一月一日부터十月末日까지는◎

二、群山 (1)玄米

銘柄	等級	最高販賣價格
◎銀坊主	四	四一、五八

附記
一、龜印、牛印 二〇錢格上
二、(全印不二、鐵獨印不二、村印) 七〇錢格上
三、◎印◎印◎印◎印 五〇錢格上
四、◎印◎印 一五錢格上
五、南原 四〇錢格上
六、鎭川、興德、淳昌 一五錢格上

銘柄	等級	最高販賣價格
◎	四	四一、三四
◎瑞光	四	四二、二八
◎穀良都(□印)	四	四四、〇四
一月一日부터十月末日까지는◎와同格		
◎錦	四	四三、七四
右同		

銘柄	等級	最高販賣價格
陸羽一三二號	三	一一、七二
多摩錦	三	一一、七九
赤神力	三	一一、六二
◎	三	一一、三三
◎銀坊主	三	一一、三三
右同		

三、木浦 (1)玄米

銘柄	等級	最高販賣價格
◎銀坊主	四	四一、七五

一、榮山浦、法聖浦二〇錢格上
二、松汀里、長城三〇錢格上
三、◎印◎印◎印◎印 ◎印

銘柄	等級	最高販賣價格
◎	四	四一、三九
◎榮光	四	四二、四三
◎多摩錦	四	四二、六三
◎中生神力	四	四三、七三
◎早生旭	四	四三、六三
◎雄町	四	四五、五三
一月一日부터十月末日까지는◎와同格		

(2)正租

銘柄	等級	最高販賣價格
銀坊主	三	一一、五九
◎	三	一一、三九
榮光	三	一一、六九
多摩錦	三	一一、七一
中生神力	三	一一、七七
早生旭	三	一一、七四
雄町	三	一二、五七
一月一日부터 十月末日까지는◎과同格		

四、釜山 (1)玄米

銘柄	等級	最高販賣價格
◎穀良都(□印)	四	四四、一三
一月一日부터十月末日까지는◎에比해一〇錢格上		
◎銀坊主	四	四一、六九
◎瑞光	四	四一、一九
◎日進	四	四二、一九

五、大邱 (1)玄米

銘柄	等級	最高販賣價格
◎穀良都(□印)	四	四三、〇七
一月一日부터十月末까지는◎에比해一〇錢格上		
◎銀坊主	四	四二、四七
◎瑞光	四	四一、〇三
◎日進	四	四一、五三

備考 玄米及正租의 各等級間의 價格差는 各取引所가모두 左記와갓다
玄米 一等六〇錢上 二等三〇錢上 四等基準 五等四〇錢下
正租 一等一圓 二等 一等二厘上 三等基準

對內地貿易累計 記錄的大入超
十月까지入超近四億

財務局調查＝十月中에 잇서서의 朝鮮對內地貿易은

移出 五千七百五十四萬圓
移入 一億六百五十二萬圓
合計 一億六千四百六萬圓
入超 四千八百九十八萬圓

으로 前年同月에 比하여 移出이 一千六百十八萬圓(三割九分) 移入 一千七百五十萬圓(二割五分)合計 四千三百六十九萬圓(三割六分)을 各其增加햇다 그리고 一月以降累計額은

移出 六億百六十一萬圓 (昭和十三年中)(移出七〇、五三九千圓)
移入 九億九千二百二十三萬圓 (昭和十三年中)(移入九二一、三四五千圓)
合計 十五億九千三百八十五萬圓 (昭和十三年中)(合計一、六三一、八八五千圓)
入超 三億九千六十萬圓 (昭和十三年中)(入超二一〇、八〇六千圓)

이것을 前年同期에 比하면 移出은 二千五百五十九萬圓 即四分 移入은 二億五十二萬圓 即二割三分을 移出入合計는 二億七十七萬圓 即一割一分을 各其增加햇스며 이러한 移出增에 比하여 移入의增進에 入超額은 前年同期의 二倍로 되엇다 다음에 十月中에 잇서서 移出에 比하여 移入의增進에 達하여 前年同期의記錄的巨額에 達하여 前年同期의 二倍하가되엇다. 다음에 十月中에 잇서서 移出의增進한것은 米의 過半은 朝鮮地方旱害의 影響을 바더 米의 出廻가 稀少의 不況을 뵈하여 同品에잇서서 出減二十萬石(七割五分)六百二十八萬圓(七割二分)에 達한 外에 大豆、牛皮及大麥等도 亦是 多少不況狀態이엇스나 地下資源開發計畫의 進行에 伴하여 含金銀粗銅을 首位로하고 其他主要鑛産物의 出荷가 더욱 旺盛케되어 此等鑛産物에 잇서서 八百七十萬圓(七割七分)을 激增하고 또肥料는 魚粕及硫安이 出荷好況으로 因하여 三百七十萬圓을 增加되고 其他魚油及生絲等 主要品의多數는 모다出荷好況을 뵈하엿다.

他方移入에잇서서는 諸種의統制强化를 反映하여 人絹織物에 잇서서 百四十五萬圓 減退한것을 筆頭로 砂糖、牛皮、打綿、洋紙、護謨底靴花等이 不況을示하엿다 그러나 主要品의過半은 大槪入荷好況을 뵈하고 그中에도 機械類、木材『세멘트』及釘類等의 建設資材에잇서서 八百十七萬圓、小麥(製粉原料)에잇서서 三百萬圓、絹織物에 잇서서 百七十萬圓、스·파織物에잇서서 九十七萬圓、米에잇서서 九十五萬圓(其中台灣米八十三萬圓 內地米十二萬圓)을 各各激增하엿다 如左하다(單位千圓)

移出品	十月中移出高	前年同月에比한增減(△)
含金銀粗銅	五、四一五	二、八六四
肥料	三、九七七	一、七七三
生絲	三、一四四	一、〇〇六
魚油	三、一九〇	一、三一九
鮮乾魚	二、九四四	八六九
米	二、六四八	△六、二八八
石炭	一、二〇六	三二四
重石	一、二九六	一、〇〇二
石粗鉛	一、二七〇	二八七
牛皮	九六九	△一四〇
黑鉛	七二〇	一、〇三二

移入品	十月中移入高	前年同月에比한增減(△)
林檎	四一一〇	一二三
金屬	七、七六〇	一、三四四
洋紙	二、七八四	二二一
黑鉛	二、五四	二、三四八
海藻	一、五四二	一一六
大豆	一、九三九	一三五
구리세린	一、二四〇	七〇六
大麥	八	△六一
牛皮	一	△一二

移入品	十月中移入高	前年同月에比한增減(△)
機械類	一〇、二六〇	三、〇四一
絹織物	五、〇六一	一、七〇一
木材	三、七六六	二、五九二
人造絹織物	三、八六一	△一、四五〇
스·파織物	二、一一二	九七〇
石炭	二、二五七	三七〇
肥料	一、三二二	一、九〇〇
小麥	一、八九二	三、〇〇〇
毛織物	一、六九九	九九八
肌衣	一、七三五	五一六
洋紙	一、三三〇	△一、一二三
米	九七六	九五二
陶磁器	八九六	一四一
綿織物	八四六	一
『세멘트』	八四三	三六五
小麥粉	八〇〇	二〇三
釘類	七四三	三五五
砂糖	七六二	△三九九
人造絹絲	七二七	△二五四
淸酒	六九〇	二〇四
護謨底靴	六六五	△二〇六
牛皮	五一〇	△二四二
打綿	四一六	△三三三

上旬도繼續出超
出超累計五億四千萬圓

【東京電話同盟】十一月上旬中의貿易額은 如左하다(單位千圓)

	十一月上旬	一月以降累計
輸出	二一七、三五九	三、六六六、一七九
輸入	一六八、八六五	三、一二四、四五五
合計	三八六、二二四	六、七九〇、六三四
出超	四八、四九四	五四一、七二四

朝商會頭問題
總督府內意에順應

朝鮮商議議員會는 十日午前九時半부터 豫定보다 三十分 繰上開會하고 役員選任의件及定款變更의件에對하여 協議中인데 仄聞하는바에依하면 總督府의意向으로선 朝鮮商議는 將來充分한機能을發揮하여 일을하여야할것이니 京城商議頭의 朝鮮商議會頭를 兼任하는것은 이것을 分離하여 相當한人格者를 選任할것이므로 只今直時會頭의選任을하는것은 保留하라고 內示하엿다하여 이로써常議員會의意見은 選出檢討中으로容易히結論에達치안코 正午休憩午後에마치고直時再會議는協議하기로된바 午後二時의臨時總會開催까지에解決될모양이나 아마總督府의 意向에順應하기로될것이라한다

河駿錫氏의 豊凶모르는일

氏를 아직도 시골地主로 알사람이 더러잇슬께다. 말하자면 中央實業界에서는初年兵이다. 나이는 三十과四十中間에 엉거주춤햇고 體威가 좀不足해서 뒷골목 선술집에서 종종 맛나는 사람가트나 其實은 前鍾路통자리에『長安삘딩』을 차리고多望한前途를 갓게된 朝鮮工作會社의 젊은社長이다. 聰明한데다 南道的好人風이잇서 馬術選手(?)인만큼 斯界의出世도 스피-드가 잇는듯하다.

『삘딩經營의 所感이어떠십니까』

『豊凶을모르고지내니 좃습니다. 더생기는일도 업고 덜생기는일도업서 시정해논돈이 다달이드러오니까요』

『物資不足으로 집지으시기에 욕보섯지요?』

『녜 아직도 뒤러가 남아잇습니다. 이러에 제대로 짓는다면 平和삘딩보다도 더잘 지을수잇섯습니다』

氏의꿈은 삘딩業의 확장인모양이나 時局이時局인지라 解氷期를기다리고 方在冬眠中인듯십다.

全朝鮮主要都市의 十月中小賣物價
比前月一分九厘高

總督府商工課調查에 依한 十月中全朝鮮主要都市에 잇서서의 小賣物價를보건대 調查品目 八五品中 前月에比較하여 騰貴된것이 五〇品、低落된것이 一四品 保合이 二一品으로 總平均에잇서서는 前月比較 一分九厘가騰貴되고 前年同月比較 一割七分一厘가 騰貴되엇스며 또 이것을 品類別로 表示하면 如左하다 (指數는 昭和八年中 平均價格을 準 十〇〇로한 指數 (一)은低落)

分類	十月指數	前月比較	前年同月比較
食料品	一六〇、〇	+二、七%	+一三、七%
衣料品及身廻品	一九九、七	+二、〇	+二六、九
建築材料	一六〇、七	+〇、九	+二二、七
燃料	一四七、四	(一)〇、三	(一)〇、五
雜品	一五〇、七	+二、〇	+二四、九
總平均	一六四、九	+一、九	+一七、一

都市名	十月中平均指數	前月比較
京城	一七一、四	(+)三、六%
仁川	一六一、四	(+)二、一
群山	一五八、七	(+)一、三
木浦	一六三、一	(+)一、〇
大邱	一六二、七	(+)二、四
釜山	一六七、九	(+)〇、九
平壤	一六一、〇	(+)一、二
鎭南浦	一七七、二	(+)一、二
新義州	一六一、一	(+)一、八
元山	一六三、四	(+)一、三
淸津	一六八、五	(+)三、二

有煙炭積極開發
一千五百萬圓會社創立
穗積 殖産局長 談

朝鮮에 잇서서의 有煙炭의産地는 咸鏡北道의 鑛道沿線이散在한 所謂咸北炭田을 그主要한것으로하고 其他咸興 安州 嶺山等의 炭田이잇스며 그埋藏量은 三億八千萬瓲으로 推定되는바 그主要産地가 大槪遼隔한地方으로 消費地에 遠隔된關係上 長期間不況이 繼續되어오던바 最近北朝鮮地方을 爲始하여 朝鮮內各地에 諸工業이 勃興되고漸次有煙炭의 需要增加를 招來케된것과 事變以來 內地及滿洲炭의輸移入이 顯著히 困難을缺케된까닭에 此等炭田의 開發이 急速을 要케되어 漸次活況을 띠게된것이다

이와가치 石炭需要의 急激한增勢에對應코저 當局으로서는昭和十二年에 石炭增産五個年計畫을樹立하고 業者에對하여 坑道의新設 設備의擴充等을 慫慂하여 極力增産에邁進해온結果 相當한實績을 擧케된것이다 그러나 이것을全般的으로보면 現在作業中에잇는 數個所의 炭礦을除外하고는 大槪그經營狀態로도 아 增産上 今後에 큰 期待를 바랄수업는狀態로서 따라서 需要의增勢에 應케되지못하는 現狀이다

그런데咸北炭田中에는 現今廣大한面積에亘한 總督府名義의石炭鑛業出願地가잇는바 元來 本出願의 目的은 炭層賦存의 狀態를 調査闡明하고 必要에 應하여 合理的으로 開放을하려는데잇고 該出願區域中에는 保留前 이미民間의鑛區에 占有되고 또는炭層의發見이 充分치안한 區域도 적지안흔바나 또 相當한面積에 亘한 有望地帶를 가지고 잇다 重要鑛物 增産令이 公布되고 石炭의增産을 急務로 하고잇는 總督府가 이것을 開放하여 合理的開發에 資케하는것은 實로 時宜의措置라 생각하고 今番그 開放의方針을 指定한바이다

今日各般의 鑛業用資材와 技術勞力이 全面的으로不足되고잇는 現狀에잇서서 經營單位가 小分되어 이것이 併立하는것은 헛되히 鑛業用資材를 分散시키고 設備의 重複을 招來하여 技術勞力의 爭奪을 惹起하는等의 弊端이 發生하여 開發用諸資料의 効率을 充分히 發揮키어렵고 따러서 重産計畫의圓滑한 遂行은到底히 期待키어려울것이다 特히때마침 石炭需給의 圓滑化또는 低物價政策에 卽應할때에 可及的迅速히 有煙炭鑛의 大合同을 圖謀할이 緊切한바인것을 痛感하는바이다 有煙炭이 主로 咸鏡北道에集中되고잇는關係上 合同의 効果는特히 顯著한것이 잇는것을생각하고 保留鑛區開放의 方針을 決定함에當하여는 敍上의 點을 愼重히 講究한바이다

即保留區域中 가장 有望視되는區域은 古乾原炭田으로서 該炭田의一部는 이미 北鮮炭礦株式會社의 經營에屬하여 增産中이오 東拓鑛業株式會社도 同地方에鑛區를 所有하고 採鑛中으로서 將來積極的으로 開發의 希望을가지고 東洋拓殖株式會社도古乾原炭田에 鑛區를所有하고잇는 關係上 此等會社의鑛區를 包攝하는 同時에 이제朝鮮有煙炭株式會社의創立을 計劃하고 이에對하여 同地方의總督府保留區域 炭田을讓渡코 漸次本會社를中核으로하고如上方策의 實現에邁進키로한것으로서 今後朝鮮에잇서서의 各種産業의 進展에寄與하는바가 적지안흘것은 진실로 欣幸한바이다

朝鮮有煙炭株式會社의 事業槪要를 말하면

一、資本金 一千五百萬圓 (內現物出資六百六十八萬圓)
二、本店所在地 京城府
三、目的 北朝鮮地方에 잇서서의 石炭採掘과 이것에附帶한 一切의事業을 經營함을 目的으로하고 國策에順應하여 石炭의增産을圖함
四、事業의槪要 大槪北鮮炭礦株式會社로부터 그所有鑛區及그鑛區에屬하는設備一切를 東洋拓殖株式會社 東拓鑛業株式會社及 麻生鑛産株式會社로부터 그所有鑛區를 現物出資케하는 同時에 北朝鮮地方에 잇서서의 朝鮮總督府의 保留鑛區를 讓受하고 採掘鑛區의增産 米

社長은池邊氏

朝鮮有煙炭合同株式會社(資本金一千五百萬圓 四百五十萬圓拂込)은 十日午前十時부터 東拓會議室에서 發起人會에이어 創立總會를 開催하고 上內發起人總代議長司會下에 創立에關한一切의 事項을附議可決한바 役員의陣容은如左하다

▲取締役社長 池邊龍一(東拓)
▲專務取締役 堀江吉之助(北鮮炭鑛)▲常務取締役 井上鐵四郞(麻生鑛業)▲取締役 田淵勳(東拓鑛業)名取義人(東拓)上內彥策(東拓)▲監查役 吉川淸七(東拓)原茂一(東拓)三浦次郞(麻生鑛業)

第一回政府米買付
五十萬石約定

【東京電話同盟】酒井農相은十日의閣議에서 米穀에對한 緊急施設實施後 米穀事情에對하여 報告하고 本米穀年度에 잇서서 政府米賣付施設은 公定價格引上으로 産地가好感하여 出廻는 자못 順調로히 推移되어 第一回買付五十萬石은 이미 全部買約定이成立된것을 報告하엿다

英日爲替續騰

十日入電에依하면 英、米爲替는 三弗八十五仙으로 前日에比하여 一弗에六仙이나 低落되고 英日爲替는 一志二片三十二分之十三으로 八分一高의 續騰이엇다 또滿洲英爲替는 一弗에十六分三이나 引上하여 一志二片十六分七이엇다

磅또崩落

【紐育九日發同盟】今九日의紐育爲替市場의 磅은漸顯著하여 落潮暴墜하고 寄付는一時 三弗七十七仙이라는低價에陷落하엿고 其後買戾로 回復되엇지만 底意는依然軟調를 뵈하여 最終市勢는 三弗八十五仙으로 前日에比하여 六仙低이엇다

鮮銀券限外發行
一千二百十三萬餘圓

鮮銀券發行高는 三億五千萬圓台臺 繼續中인데 九日繰越에는 드디어 限外發行을 示現하엿다 即 九日繰越은 發行高三億五千二十四萬八千圓으로 새로이 限外로서 一千十二萬九千圓을 示하여 昨年末以來의 初現象이엇고 十日繰越은 發行高 三億五千百十五萬四千圓으로 限外發行은 一千二百十三萬九千圓으로도 二百萬圓이 나돌엇다

鮮銀支店長會議

朝鮮銀行에서는 十日、十一日의 兩日에亘하、本店에서 南朝鮮及內地關係의 支配人會議를 開催하기로 되엇다 湖南、南朝鮮의 旱害에關聯하여
一、旱害地代用食금融、旱害應急策協議
二、旱害救濟士木工事金融그他協議
三、米穀金融及商品爲替等을中心으로 協議하기로 되엇다 出席은 本店에서 總裁、理事本店支配人、各課長、支店側은 大邱、群山、木浦、麗水等의 外에特히 名古屋、下關、神戶에서도 列席하엿다한다

生産力擴充 貿易振興展

府內 南大門通 總督府商工獎勵館 十周年記念行事等으로서 十日부터 十六日까지 一週間同館에서 開催하는 生産力擴充及貿易振興展도 모두 時局上國策線에따르는 稀有의 有意義한施設로서 一般으로 好評을 博하고잇는데 生産力擴充展은 朝鮮內主要한 關係會社 工場의 特殊出陳에依하여 場內에 異彩를發하고 또貿易振興展의 出品物은商工省 商易局 橫濱商工獎勵館 大阪府 貿易館等에서 蒐集한海外市場 競爭品 一千數百點을 展示하여 朝鮮의 輸出貿易振興上 裨益하는바 不少할것으로 보인다 出品物의 種類는如左하다고

▲鑛鐵、石炭、알미늄、마네숨、銅、金、亞鉛、人造石油及其代用品、曹達、工業鹽、硫安、『펄프』、工作機械、車輛、船舶、自動車、羊毛、電力、니켈、重石

酒造米節約
二百萬石決定

【東京電話同盟】戰時食糧對策으로서의 酒造米節約에 關해서는 前부터 企劃院과 大藏省間에交涉中이던바 八日夜에 이르러企劃院案인 內地二百萬石 節米量 外地量適하여 二百萬石節米하기로 意見一致를보고 近近米穀統制限勅令과함께 大藏省令으로서 決定되게되엇슴으로 大野大藏次官은 九日 首相官邸에서 開催된 節米에關한 總動員審議會에서 中村三之助委員의 質問에答하여 如左히 十四酒造年度에잇서서의 酒米節約의 方針及그實施에關한 當局의方針을 言明하엿다

一、酒米節米의은 十四酒造年度에잇서서 內外地를通하여 約二百萬石으로 計算할 現在酒米는內地二百七十萬石 外地百萬石가량이므로 此節減量은 酒造各 新酒米方針下에 減하고 二百萬石節米을 期함
二、麥酒에對해서도 資材關係로 電力、石炭等의關係도 잇서二割程度制限할計劃이다
三、酒石酸의 製造에對하야는 供給量의 關係與當局과의 協議에 依하야 決定 詳細는 추후決定
三、酒稅의 減收는 右의結果 前年度에잇서서 一億二三千萬圓으로보는것이다 이것은現行稅率에 依하여 酒及麥酒等의 稅收에 依한 數字이다 外地關係는未詳
四、酒石酸專賣制와의結果 酒의供給이 減少되어 市場에供給不足한點이 잇스면 그對策으로서 左의諸方策을 考究中이다
(가) 節酒運動에 依하여酒消費를抑制
(나) 稅制改革에依하여酒(淸酒)에一割의課稅率을 增徵하야 麥酒도約二割의課稅率을 引上하야 이方面으로부터 需要抑制
(다) 新酒酒價가되면 製造의 價格統制에 依하여 價格의引上을 防止하기로함
五、酒造高調價의 中小酒造家에 미칠 影響에 對하여는 左의 理由로 經濟上 充分히 期待할 酒造家에 酷하지안토록考慮함
(가) 酒造高配分에對하야 中小酒造家에 酷하지안토록考慮함
(나) 節米의 新酒造用의 利用에 잇서서 酒造減을 考慮함
(다) 節米는 喫茶에 의하여 米의 消費를 減하고 酒造用 制限을 圖함이 可한것이라는 指導하기로되엇스니 安堵할것이다

▲平尾信通氏(朝銀秘書課長)渡東 中九日歸任

株式賣出統制
機關設置要望

【東京電話同盟】最近興銀이 滿洲鑛業株六十萬株를 有償證券下請業者七社를 通해서 賣出하기로 決定하여 株式取引業者의 새로 問題를 이에 여러가지 紛議를 이르켯는데 이러한 事態가 생긴것도 株式賣出에對하여 이것을 統制할 機關이 存在치안는 結果이고 資金調整上으로도 喫緊을 要하는것으로서 金融界에서는 株式賣出統制機關의 急速한設置를 要望되게되엇다 即起債市場에서도 混亂이 생기기 쉬운데 事變下資金 調整法의實施를 契機로하여 起債市場의 統制機關이 興銀의 손에 歸한結果最近은 頗히 順調로 發展되고잇는데 鑑하여 株式賣出에 對해서도 이러한 統制機關의 必要가 痛感되게된것이다 卽同問題는

今日財界十日

◆米穀 (單位錢)
玄米◎銀坊主 四等 一石 四一、二五 四一、二五
七分搗白米小賣價 同 四四、〇〇
◆雜穀 (單位錢)
籾粟(滿洲)百斤 一〇、〇〇 不變
大豆 三等 一石 一九、〇〇 不變
大麥(秋) 一石 一三、〇〇 不變
小麥 新穀 三等 一石 二八、〇〇 不變
京城金一匁(買) 一四、三〇 不變
◆株 (單位十錢)
今日後場 比前日後場
朝新 三一九 不變
東新 一三七六 一低
紡新 一三〇 不變
棉花 大阪 今日後場 一五〇
綿布 一五三 不變
◆商品 (先物單位錢·噸)
生絲 橫濱 前場 前引 後場 後引
先限 八一〇〇 八一〇〇 八一一〇

今日現株市勢(正午現在)

◇鮮內株式
鮮銀新 五九五 殖銀新 五〇〇
殖銀新 六八三 京春鐵 四五、〇〇
朝鐵 六九〇 同新 五〇〇
金剛電 六六、〇〇 同新 一九、〇〇
京電 六三、〇〇 西鮮電 五三〇
南鮮 五、六八 漢水電 一〇〇
南朝鮮 四、〇〇 中央無盡 六、五〇
朝運 一六、六〇 製鍊 九〇
無煙炭 二九〇 小林新 三〇
全鮮證 三〇、〇〇 三陟開 三〇〇
마시네 二八、〇〇 朝紡新 一〇〇
朝石 六八〇 同 新 二三〇
東拓新 三九〇 弘中新 一五〇
◇內地株式
鐘實 九八〇 帝人新 一二三八
日曹鐵 五五、〇〇 日曹新 五五、〇〇
九曹新 七六〇 日石 七六、〇〇
日鑛新 六九〇 三菱新 一五〇〇
日曹鐵 三八、〇〇 帝産新 一〇、〇〇
郵船 一〇一〇 同 新 三八、〇〇
商船 九六、〇〇 同新 八一〇〇
航空新 七四〇 重工新 五〇〇
池貝鐵 四七、〇〇 同 新 五一〇〇
神戶新 三一、〇〇 特殊製 九六、〇〇
日立新 五五、〇〇 小倉新 四一、〇〇
鋼管新 五〇、〇〇 同二新 五二、〇〇
日鐵新 三一、〇〇 닉켈鑛 三三、〇〇
淺野二新 三二二 水産新 二三〇
川造 九六、〇〇
◇滿支株式
滿鐵 七〇、四〇 東邦칼 二五、〇〇
東亞煙新 四二、五〇 錦州칼 二二五、〇〇
大同 二一、五〇 日滿商新 四二、〇〇

▲東京國債
▲甲號五分 一〇五、五〇 ▲二回四分 一〇三、五〇 ▲二回四分 一〇三、五〇 ▲佛貨四分 三八九、六〇 ▲米貨五分半 四〇七、〇〇

大阪延取引 十日도休會

【大阪電話】(商通) 大阪米穀市場은 建玉整理를 爲하여 十日도 前後場모두 繼休이엇다

橫濱生絲低落

【橫濱電話】(商通) 現物取引이 依然不振한까닭에 다시不勢로된『마바라』의 困賣에壓迫되어 反落되고 先限은 千七百七十七圓의 寄引 十七圓低의 不勢로 大引되엇다

寸鐵

▼…朝鮮서도 公定米價를 今日發表, 農林局諸公수고하엿소.
▼…玄米는 京城이 四十圓八十四錢으로 제일 五圓高七分搗白米小賣價는 四十二圓九十三錢으로 三圓九十五錢高.
▼…이만하면 適正하겟지, 더버티지말고 放賣들할일, 버터어도 쓸데업스니.
▼…正租公定價는 이번에除外, 진작 그랫슬것이지.
▼…자 一年茶인 實施될米價가 發表되엇스니 嚴重히 取締해수어야잘 잘것소.

株式 浮動 一高一下

今日의市勢 十日

前場堅含

今朝는 昨日後場의下落의 뒤를이어 東新一低에 二百五十二圓五에 寄付되後買氣小衰이어서 一圓二까지 買付되엇스나 伸悩關狀을呈하다가結局東新은 五十二圓九에 大引

後場頭重

後場은 東新一本값이 四高인百五十三圓 二時十分後 頭重關狀을呈하엿다

同一圈內往來

昨日後場에는 支那事變 關散甚趣의 買物이나와 東新一二時百五十一圓高로 下落되엇다 이에 대하여 今朝는 若干의押目買가 잇기는하엿스나 겨우四、五十錢에이어 一圓高인 十七圓五、六까지 볼런다

現物同調

淸算王力의 小往來도鎭株도 活氣薄이어서 一般으로 氣息을거듭하고 잇는데 王子製紙新은 拂込徵收說로三、四圓高인六十五圓、大日本兵器가 潮低買로 三十四圓까지 買付되엇다 朝鮮物은 朝鮮鑛業이 好況을 뵈하엿다

市場雜感

㈱…佐堂商工相 다시低物價政策强化를 力說하엿스나 言과行의相距를奈何▲그래도東新에對해서만은 當局의抑壓에對하여 警戒不怠▲但雜株方面을 買煽하는것은 無妨으로생각하고잇는모양▲上으로百五十四圓下로百五十二圓의 同一圈內往來를離脫하기前에는 어쩔수업다는論調가有力▲더욱이 買方으로선 百五十五圓을 拔하기前에는 安心買를못할形勢

金買入 重石·水鉛 三昌鑛業所 京城南大門通二の十一 (朝鮮信託前) 電話本局三〇二五番

株式 ◆朝取短期◆ (評價一株單位十錢)

	寄付	大引	高價	低價
朝新 前	三二九	三二九		
朝新 後	三二九	三二九		
東新 前	一五二五	一五二九	一五三〇	一五二五
東新 後	一五二六	一五二五	一五二六	一五二六
新東 前	一五二五	一五二九	一五三〇	一五二五
新東 後	一五二六	一五二五	一五二六	一五二六

◆大阪短期取組◆

銘柄	寄付	大引	高價	低價
新鐘 前	八三〇	八二〇	八三〇	八一八
新鐘 後	八三〇	八二二	八三〇	八二〇
紡鐘 前	八三〇	八二〇	八二〇	八一八
新大 前/後	一三四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京短期取組◆ ◆東京現株◆ ◆大阪長期◆

(細目 [illegible])

棉花 (評價百斤單位錢)

	前寄	前引	後寄	後引
大阪 十一月	六五〇〇	六五五〇	六五〇〇	[illegible]
十二月	六四五〇	六四七五		
一月	六三〇〇	六三〇〇	六三〇〇	
二月	六三〇〇	六三〇〇		
三月	六三〇〇	六三〇〇	六四〇〇	
四月	六三五〇	六三五〇		
五月	六三五〇	六二五〇	六二九五	六二九五

綿布 (評價一反單位厘)

	前寄	前引	後寄	後引
大阪 十一月	二三九五〇	二三九五〇	二三九五〇	二三九五〇

海外經濟 九日

◆銀行券◆ (細目 [illegible])
◆金利◆ ◆京金利◆ ◆大阪金利◆
◆京城手形交換高◆
◆京城市中金銀價◆
◆東京金銀價◆
◆金買入價◆
◆對外爲替◆
◆綿油粕 麥粉◆
◆日本製粉◆
◆京城 正米◆ ◆仁川 正米◆ ◆大阪正米◆
◆正租◆
◆京城 雜穀◆ ◆仁川 雜穀◆
◆京城綿糸布市勢◆
◆滿洲商況◆ ◆大連特産市勢◆

三國志 【9】
韓龍雲 譯 熊超 畵

宦官의 禍 一 (一)

그때에 손견이 황건이 잇어 진압하니 이로 인하여 현덕이 도 중산부 안희현위(中山府安喜縣尉)가 되어서 부임할새 다만 사(張飛)의 적병 잇천오백인을 데리고 안희현에 이르러 백성에게 섭섭한 치도 범함이 업스매 백성이 다 감화하엿다 현덕이 판장을 주인으로 잡고 현덕이 판장으로더부터 먹은족 상이 판장으로더부터 자리를 가치하며 두 가치하고 자면 자리를 가치하며 계하데 손견이 먼저 서어올라 현덕이 여티사람 강운데에 잇 게하고 스스로 서문으로 치며 동 문을 남겨두어 도적을 다라나 스매 판, 장이 모시고서서 종 지무리는 무너저 도망하는지라 일이라도 게을리하지 아니하엿 도저 이십여인을 베이니 나머 다. 고을에 도임한지 넉달이못 조홍이 창을 놀고 말을달려 손 되어 조서가 내리되 군공(軍功)이 있서서 정리(政 견을 취하거날 손견이 성우에 吏)가된자는 마땅히 사태하라는 서 몸을날너 조홍의창을 빼아 하매 현덕이 의심하고 잇더 서 그창으로 조홍을 찔러말에 니 마침 독우(督郵)가 고을에 내리치고 그말을 타고 왕래하며 이르거늘 현덕이 성에나가 독 도적을 죽이니 손중이 군사를 이 우를 맞보고 예를하데 독우는 말 끌고 북문으로 나가다가 현덕 위에 안자서 오직 채죽으로 가 을 만나매 싸움마음이 업서서 리처 대답할뿐이라 판, 장 두사 다만 다라나기만 하더니 현덕 람이 다 노하더니 현덕이 판사(이 활을다려 한번쏘매 손중 館)에 이르매 독우는 남쪽으로 이 화살을마저 말에 떨어지 는지라 주준의 대군이 뒤를따

르며 엄살하니 머리 만여급을 베이고 항복하는재 만호지라 남양의 수십 고을이 다 평정하매 주준이 군사를 독리 어 서울에 돌아오니 거기장군하남윤을 봉하는지라 주준이 손견과 유비등의 공을아뢰매 손견에게는 사적(私情)이 잇서서 별군사마(別部司馬)를 제수하고 오직 현덕은 여러날을 기다리되 벼슬을 엇지못하는지라 유판, 장세사람이 가깝하게 지나다가 거리에서 낭중(郎中)장균(張鈞)을 만나서 현덕이 스스로 공도를 말하매 장균이 크게 놀래어 조정에 들어가 아뢰되 『예적에 황건적의 반한것이 그근원은 십상시가 벼슬을 팔아서 친한자가 아니면 쓰지안코 원수가아니면 베이지아니하여 천하를 어지럽게함에 잇스니 이제 마땅히 십상시를베이어 머리를 남교(南郊)에 달고 사자를 보내어 천하에 발포하고 공잇는자를 상주면 사해가 스스로 평안하리다』 하니 십상시가 장균이 임금을 속인다 아뢰매 임금이 사람으로하여금 장균을 내쪼찻다. 십상시가 서로 의론하되 이는 반드시 황건을 파하여 공이잇는자가 벼슬을 엇지못한고로 원망함이니 아직 적은벼슬을 제수하엿다가 차차 처치하는것이 늣

향하여 노괴안고·현덕은 뜰아래에 모서 선지라 한참잇다가 독우가 『유현위는 무슨 출신이냐』 하고 뭇거늘 현덕이 『나는 중산정왕의 후예로 탁군에서 황건을 파하므로부터 대소 삼십여번의 싸움에 적은공이 잇서 지금벼슬을 어덧노라』 『네가 거짓 종친이라 일컷고 공연히 공이잇다 보한것이라 이제 조정이 조서를나려 그러한 참남되고 더러운 벼슬아치를 사태한다』 하고 큰소리로 꾸짓는지라 현덕이 다만 소리를 연하여 대답하고 돌아와 아전으로 더부러 의론하니 아전이 말하되 『독우가 위엄을 베푸는것은 뇌물을 요구함에 지나지 아니함이라』 하거늘 현덕은 『내가 백서에게 추호도 범한것이 업거늘 어찌 재물이 잇스리오』 하엿다 이튿날 독우가 먼저 고을 아전을 무롤어다가 억지로 현위가 백성을 해첫다고 말하게 하는지라 현덕이 몃번이나 스스로 가서 아전을 구하고자 하엿스나 문에서 막아서 들어가지 못하엿다.